

부산출신 金仁泰 · 金鉾泰 형제의 생애와 독립운동

김 영 범*

| 목 차 |

- I. 머리말
- II. 청소년기 이력과 중국 망명의 길
- III. 김인태의 독립운동 참여와 좌절
- IV. 김병태의 독립운동과 그 추이
- V. 맺음말

| 국문초록 |

이 글은 의열단운동과 부산(사람들)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부산출신 의열단 간부였던 김병태의 독립운동 행로를 생애과정 연구의 관점에서 전면 고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쓰인 것이다. 곁들여 필자는 그의 형 김인태의 생애도 독립운동 행보와 그 좌절에 초점을 맞추면서 처음으로 추적 탐사해 보았다.

동래 좌천동에서 각기 1896년과 1899년에 태어난 형제는 중학 졸업 무렵부터 민족의식을 버리며 항일행로를 밟기 시작했다. 1915년 상하이로 건너간 김인태는 대학을 다니다 1919년 신한청년당원이 된 것으로 보이며, 3.1운동 준비를 위한 국

*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 kint@daegu.ac.kr

내잡입 활동 후 파리강화회의의 한국대표부의 일원으로 파견되어 ‘김탕’이라는 이명으로 활약했다. 그러다 곧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한인사회의 정치적 기류에 잘 융합되질 못했는지 뜻을 펴지 못하고 내내 소외되는 처지에 놓여 있다가 1933년에 귀국했다. 1년 후 새 포부를 품고 중국으로 갔지만 일경에 의해 강제 송환되고 마는 비운을 겪었다.

1918년 중국으로 망명한 김병태는 1920년 상하이에서 의열단에 가입하여 박재혁의 부산의거가 성사됨에 기여했고, 김원봉의 의형제이자 기밀비서가 되어 1935년까지 줄곧 의열단운동 대오의 중심부에서 활동했다. 민족혁명당 창당 후에도 내내 기밀비서 직을 맡아 1945년까지 김원봉의 정치적 보좌역을 자담했다. 일찍이 한 중국인의 양자가 되어있던 그는 8.15 광복 후에도 상하이에 남아 10년 이상 재류하면서 처음에는 조선민족혁명당·인민공화당의 명맥 유지에, 뒤에 가서는 한인사회 결속에 주력했다. 형제는 둘 다 심지 굳은 독립운동가로 살아가려 했음이 분명하고 정치적 선택에서 비슷한 면이 있었다. 그러나 각자의 입지와 성취도와 생애 후반의 모습에서는 상이점이 꽤 있었음도 확인된다.

주제어: 김인태, 김병태, 의열단, 민족혁명당, 파리강화회의의 한국대표부

I. 머리말

이 글은 의열단운동과¹⁾ 부산(사람들)과의 관련에 관심 갖고 탐사해보는 데서 단초가 주어졌다.²⁾ 의열단 ‘창립단원’ 중에는 부산 출신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럼에도 부산은 의열단운동의 국내거점이 처음 만들어진

1) ‘의열단운동’이란 창립 이후로 의열단이 기획하고 벌여간 항일투쟁·독립운동·민족운동·혁명운동의 범위에 속하던 의열투쟁·군사운동·정치운동·대중운동 등의 내용을 모두 아우르는 의미로 쓰는 말이다. ‘홍사단운동’이나 ‘신간회운동’과 같은 식의 용어이고, 자기 조직의 수호·유지·확장 활동도 물론 포함된다.

2) 더 구체적으로 밝히면, <박재혁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2021.5.12, 부산 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발표했던 줄고 「의열단운동과 부산—독립운동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를 골조로 삼으면서 김병태 관련 부분만 추려내 대폭 확충·보완하고 김인태 관련 고찰을 추가해 새로 쓰는 글이다.

곳이다. 창단 후 첫 국내거사가 추진되고 있던 중인 1920년 봄에 밀반입된 무기 일부의 수령 및 전달과 연락 포스트 설치가 부산에서 이루어졌음에서다. 그것은 부산이 경성의 식민통치 사령부를 타격하려는 의열단 활동의 전진기지가 되었음과도 같다. 그에 앞서 상하이에서 남만주 안동현(安東縣)을 거쳐 국내거사용 1차분 폭탄이 이송 중계되던 과정에 張建相의 조력이 있었으니, 그것은 의열단(운동)과 부산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인연의 시작점이 되었다.³⁾

그 다음이 朴載赫이었는데, 그의 1920년 9월 의거로 부산은 의열단의 의열투쟁이 첫 개가를 올린 곳이 되었다. 그 거사가 성사되는 데 부산출신 의열단원 金鉉泰의 막후 역할이 있었음 말고도, 다른 청년지사들의 의열단운동 동참 · 관여가 1930년대의 후기⁴⁾ 국면까지 꾸준히 이어졌다. 시점 순으로 거명해보면, 金永柱, 李東華, 文時煥, 朴文燾 · 朴文昊 · 朴次貞 3남매, 金永培, 文吉煥, 李懋庸, 崔章學, 그리고 장건상의 자녀 張志甲 · 張秀延(張守雲) 남매 등이다.

이들에 대한 연구 또는 논의는 일정 범주로 묶어서든 개별 인물로든

3) 상하이에서 金元鳳 등이 폭탄 3개를 안동의 영국인 세관원 S. 보잉을 수취인으로 하여 수하물로 부친 것은 그저 모험적으로나 막연히 선심을 기대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1916년부터 1919년 초까지 안동현 세관의 직원으로 일한 바 있는 장건상이 보잉에게 사전연락을 취하고 협조를 구했기에 가능해졌을 바였다. 그는 1882년 경상도 칠곡군에서 태어났지만 이듬해 가족 전원이 동래군 좌천동으로 이주하니 거기서 유소년기를 보내고 부산사람이 되었다. 1908년 미국유학을 떠났던 그는 1916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상하이로 직행했고, 거기서 申奎植의 권유대로 안동으로 가서는 세관 직원으로 근무하며 망명 지사들의 길 안내를 도맡아했다. 김원봉과도 그 과정에 알게 되었다. 1919년 3월에 장건상은 상하이로 돌아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고 11월에 의무차장이 되어 두 달 남짓 재임했다.

4) 1919년 11월에 창립된 의열단은 1935년 7월 중국 난징(南京)에서 ‘단일 大黨’ · ‘통일 신당’으로 민족혁명당이 창건될 때 그 조직틀 속으로 ‘해소’됨을 선언하고 존립을 스스로 마감하였다. 그때까지의 16년간 의열단운동 과정에는 환경·정세 변화에 부응하는 노선 변경이 있었고, 발현되는 운동특성도 그에 따라 달라지곤 했다. 그래서 의열단 운동사는 전기(1920~25), 중기(1926~31), 후기(1932~35)의 세 단락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 것이다.

드문드문 있어왔다.⁵⁾ 그런 중에도 의외로 덜 조명되었던 이가 김병태와 이동화이지 않았는가 한다.⁶⁾ 그래서 두 사람의 생애와 독립운동에 새로 초점을 맞추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로써 의열단(운동)과 부산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확장과 심화에도 일조해보려는 뜻에서 줄고가 준비되기 시작했다. 우선은 김병태에 주목해보았고, 그러는 중에 그의 형 金仁泰도 같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국은 형제의 생애와 독립운동을 한데 묶어 정리해보기로 하였고, 그 결과물로 내놓는 것이 이 글이다.

김인태에 대해서는 1910년대의 소년기 행적이 박재혁 혹은 崔天澤의 전기물 속에서 간단히 언급된 바 있다. 1919년 파리강화회의의 한국대표부의 활동 자료나 관련논의에 청년 김인태의 이름이 더러 등장했는데, 그 인물이 김인태와 동일인임은 그 누구도 알아채거나 짚어내질 못했다. 그런 때문에도 김인태의 ‘독립운동’을 하나의 연속선으로 포착해내 그의 생애사 속에 적절히 위치시키면서 독립논제로 삼는 것은 불가한 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작업이 이제 가능해질 것 같고, 여기서 시도해보는 것이다. 동생 김병태와 동시에 고려하면 더욱 폭 넓은

-
- 5) 발표순으로 들어보면, 이송희, 「박차정여사의 삶과 투쟁」, 『지역과 사회』 1, 1996. 강영심, 「항일운동가 박차정의 생애와 투쟁」, 『여성이론』 8, 2003. 강대민, 『여성 조선의 용군 박차정여사』, 고구려, 2004. 김승, 「문시환」, 부산광역시 편,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 (I), 2004. 김승,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폭탄투척사건」, 『문화전통논집』 14, 2007. 김재승, 「부산 출신 의열단원 박문희의 항일 활동」, 『향도부산』 25, 2009. 전성현, 「의열단과 의열투쟁」, 홍순권 외, 『부산·울산·경남지역 항일운동과 기억의 현장』, 선인, 2011. 김혜진, 「부산출신 의열단원 연구」, 『향도부산』 37, 2019. 박철규, 「의열단원 박재혁의 생애와 부산경찰서 투탄」, 『향도부산』 37, 2019. 김영범, 「民山 金敎三의 민족운동과 광복 후 정치활동—父子·夫婦·丈婿 독립운동가였음에 주목하며—」,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5, 2020. 이지원, 「조선의용대원 박차정」, 심철기 외, 『항일무장투쟁과 여성독립운동가』, 역사공간, 2020 등이다.
- 6) 이동화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고, 김병태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생애를 서술해놓은 글이 1편 있었다. 이귀원, 「김병태(金鉉泰)」, 부산광역시 편,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 I (부산광역시, 2004), 33~40쪽이 그것이다.

논의와 생산적인 결과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기에 그렇게 해 보려 한다.

다행히도 필자는 학력과 활동경력을 포함하여 김병태의 생애 개략이 서술된 중국문 자필 이력서를 근래에 볼 수가 있었다. 국·한문 병용의 친필 유고, 다소 난필인 그것을 읽기 쉽게 유족이 정서한 회고문과 함께 엮었다. ‘金斌’이라는 이름으로 서식에 맞춰 쓴 이력서는 2통인데, 한 통은 1950년 11월에 ‘朝鮮人民共和黨 上海支部 書記’로서, 다른 한 통은 1955년 12월에 ‘上海 朝鮮人協會 會長’으로서 쓴 것이다. 5년 간격으로 작성된 두 이력서의 기재 내용은 대동소이하나, 그래도 후자[이하, ‘이력서 (2)’]가 더 상세하고 내용상의 정합성도 높아서 전자[이하, ‘이력서 (1)’]의 보완본이 된다. 그리고 유고 및 회고문에는 1957년까지의 평생 이력이 기술되어 있다.⁷⁾ 이들 자료는 김병태 개인의 생애와 독립운동 내역, 그리고 형제의 가족상황까지, 전체를 재구성해가며 살펴보는 데 유익하게 쓰일 수 있겠다.

Ⅱ. 청소년기 이력과 중국 망명의 길

1. 형제의 성장과정과 초기 항일경험

김인태 · 김병태 형제는 경상남도 東萊府 동래군 東平面 佐川洞에서 태어났다. 金海 김씨 鍾惠과 그 부인 文德水의 차남과 3남으로였다. 장남 ○泰는 1893년생이었고, 인태가 1896년 6월 23일, 병태는 1899년 1월 14일생이었다.⁸⁾ 이 3형제 밑으로 각각 1916년, 1923년, 1925년생인

7) 이 2종 4건의 자료는 모두 국가보훈처에 보관되어 있다.

8) 부친 김종덕이 호주인 제적부에 의함. 장남은 공인이 아니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화한다.

이복동생 3명도 있었다. 부친은 지주이면서 제염업체 경영자였고 모친은 자작농가 출신이었다. 김병태의 말마따나 가정환경이 ‘비교적 부유’한 편이었다.

김병태의 이름 표기가 일제 관헌문서들에서 ‘鉾泰’였고,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공적조서>에도 그대로 받아 적혔다. 그러나 수기 호적부에는 ‘鉾泰’로 되어 있다.⁹⁾ 발음은 같지만 字形과訓이 다른데도(‘떡병’과 ‘관금 병’) 일제 경찰 실무선에서 ‘鉾’으로 써버리기 시작했던 것 같다.¹⁰⁾ 원래의 이름자를 돌려주는 것이 맞겠으니 이제는 ‘鉾’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독립운동 시·공간에서 김인태는 ‘김쇠울, 金鐵城, 金湯’ 등의 이명을 썼고, 김병태는¹¹⁾ ‘金斌’(때로는 ‘金彬’)이라는 이명

이 제적부에는 ‘부산부 좌천동’이 두 형제의 ‘본적’으로, 『國外ニ於ケル容疑朝鮮人名簿』(조선총독부 경무국, 1934), 38쪽에는 ‘부산부 佐川町’이 김병태의 ‘출신지’로 적혀있다. 1895년 동래부가 창설되면서 동래군 등 10개 군을 거느렸고, 1912년 지방제도 개편과 더불어 동래부가 ‘부산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좌천동은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 때 부산부 부산면에 속했다가 1932년 부산부 좌천정이 되었다. 그러므로 제적부와 『容疑朝鮮人名簿』의 김병태의 본적/출신지 표기는 1932년에 개정된 행정구역명을 따른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아무튼 1896년 출생 당시에는 ‘동래부 좌천동’이었음이 부동의 사실이다.

9) 「김중덕 제적부」 참조

작성자 미상의 일람표인 『義烈團 關係者』(1924.1; 일본국립 국회도서관 소장, 2018.12.14 검색)에도 ‘金鉾泰’로 나온다. 반면에 1924년 2월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작성한 『極秘 義烈團 要記』의 <義烈團 關係者 連名簿>에는 ‘金鉾泰’로 적혀 있다. 일제기관마다 그때그때의 판단이나 편의대로 ‘不逞鮮人’의 성명 표기를 달리했다는 증좌일 것이다.

<호적법시행규칙>에 따라 2002년에 전면 移記된 장형 김○태의 전자제적부에는 ‘(동생) 并泰’로 되어 있다. 이것이 실무자의 단순착오였는지 편의적 입력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 10) 밀양출신 독립운동가 金鉾煥도 마찬가지로 일제문서나 신문보도에서 ‘金鉾煥’으로 적혀곤 했다. 단순착오였는지 아니면 은연중의 비하심리가 낳은 오기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
- 11) 「上內警發秘 제170호, 義烈團關係幹部訓練班第六隊の狀況に關する件」(在上海總領事館, 1934.3.23)의 부속문서인 <訓練團關係容疑者名簿>, 7쪽, 朝鮮總督府 警務局, 「軍官學校事件ノ真相」(1934), 韓洪九·李在華 編, 『韓國民族解放運動史資料叢書』 3, 京沅文化社, 1988, 53쪽(이하 표기되는 이 자료의 쪽수는 문서 원본의 것이 아

에 더해 ‘金平國’이라는 별명도 있었다.

이력서 (1)에 의하면 김병태는 瀛州洞의 부산공립보통학교를 1909년 3월부터 1911년 2월까지 다녔다. 지금의 봉래초등학교의 전신이 되는 이 학교는 실업가 朴琪淙 등의 노력으로 1896년 3월에 개교를 본 사립 개성학교가 1907년 사립부산개성일어학교로 개칭되었다가 1909년 정부에 헌납되면서 공립학교가 되고 교명도 맞춰 바뀐 것이었다. 그의 수학기간이 2년으로 끝나는 것은 공립보통학교 4년 과정의 앞 2년분은 다른 교육기관에서의 수학이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김인태 · 병태 형제의 학업은 본래 좌천동 鄭公壇 옆의 개량서당 育英齋에 다니면서 시작되었다. 그때 최천택과 박재혁도 동학이었다는데,¹²⁾ 범일동 박재혁의 생가 앞으로 佐自川이 흘렀고 그 건너편이 좌천동이었다. 그리고 정공단은 임진왜란 때 부산진성 전투에서 순절한 흑의장군 鄭撥을 추모하기 위하여 성의 남문 자리에 1766년 축조된 제단이었다.¹³⁾ 위의 네 소년 말고도 吳哉泳 · 김영주 · 王致德 등, 범일 · 좌천동의 죽마고우 소년들이 어릴 적부터 정공단 주위에서 같이 뛰놀며 정발장군의 고사를 익히 들어 알았다. 그런 중에도 국망의 예감과 흥흥한 소문은 점점 더 현실로 나타났고, 그럴수록 정공단과 그 주인공은 소년들이 품게 되는 반일정서의 샘처럼 되어갔다. ‘정공단의 아이들’이 성장하여 독립운동의 동지로 되어간 것은 그렇게 예기된 바였다고 하겠다.

육영재는 통감부가 제정한 ‘사립학교 규칙’에 따라 1908년 사립육영

니고 출판사 편집 때 매겨진 것이지만 그대로 따름); 『所謂軍官學校事件の真相』, 朝鮮總督府 警務局 保安課, 『高等警察報』 제4호, 1935, 84쪽. 각자의 이명에 대해서는 필요시 다시 서술할 것이다.

12) 「외롭게[의롭게?] 살다 간 항일투사 蘇庭 崔天澤」(이하, 「항일투사 蘇庭 崔天澤」), 『어둠을 밝힌 사람들』(부산일보사 편, 부산일보사, 1983, 177쪽.

13) 이병길, 「의열단원 박재혁과 정공단의 친구들」, 『영원한 청년 박재혁 의사』(사단법인 박재혁의사기념사업회 편), 효민디엔피, 2021, 136쪽.

학교로 개편되었고, 1909년 정부 인가를 받는 보통학교로 재개편되면서 교명도 (사립)부산진보통학교로 개칭되었다.¹⁴⁾ 그렇다면 김병태는 육영재로 시작하여 사립육영(보통)학교를 다니다 영주동의 부산공립보통학교로 전학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학 이유는 부모의 의사대로 일본어 학습 강화를 위해서였던 것 같다. 형 인태도 동일한 이유와 경로로 먼저 전학해 있었을 것이다.

1910년 김인태는 일본 오카야마현(岡山縣) 아사구치군(淺口郡)의 곤코(金光)중학에 입학해 1914년까지 다녔다.¹⁵⁾ 병태도 1911년 3월에 일본으로 건너가 중학과정을 이수하기 시작했다. 그의 이력서(1)에는 오카야마시의¹⁶⁾ 오카야마중학을 1915년 2월까지, 이력서(2)에는 곤코중학을 1916년 3월까지 다닌 것으로 적혀있다.

여기서 분명해지는 것은 김인태와 김병태가 박재혁·최천택의 부산공립상업학교 시절(1912. 4 ~ 1915. 3)의¹⁷⁾ 동창이었거나 부산에 계속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데도 최천택이 부산상업학교 재학 때 “매일 만나 독립운동에 대한 前途를 모의한 친구들”의 이름을 들면서 김인태와 김병태도 포함시킨¹⁸⁾ 것은 결국 사실에 반하는 오류였다

14) 金勝, 『蘇庭 崔天澤의 抗日民族志士로서의 評價』, 『韓日研究』 5, 1992, 182쪽 참조. 1896년생인 최천택이 13세 되던 때 ‘부산진공립보통학교에 입학’했다는 말의(『항일투사 蘇庭 崔天澤』, 178쪽) 정확한 뜻은 1908년 부산진육영보통학교에 입학했음일 것이다. 이 학교가 사립좌천보통학교와의 병합에 의해 부산진공립보통학교로 개편되는 것은 1911년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15) 『金仁泰 등 체포의 건』(1935.4.26), 『韓國獨立運動史 資料』 20(臨政篇 V),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DB. 이 문서에는 상하이 프랑스조계 공무국 경무처가 일본정부로부터 입수한 정보가 담겼다.

16) 오카야마는 일본 혼슈(本州) 서남부의 후쿠오카(福岡)와 오사카(大阪) 중간쯤에 위치한 일개 현이었고, 오카야마시는 현청 소재지였다.

17) 최천택이 부산상업학교에 1912년 4월 입학했음은 『항일투사 蘇庭 崔天澤』, 178쪽에 명기되어 있다.

18) 최천택(유고), 『日帝下의 獨立鬭爭記』, 朴元杓, 『釜山の 古今』, 현대출판사, 1965, 143쪽.

하겠고, 그것이 후인들의 여러 오인도 유발시켰다. 그가 ‘상업학교 2학년’이던 때(1913년) 벌였다는 『東國歷史』 등사 배포 사건의 동참자로 박재혁이 ‘학우’로, 김병태 · 朴興奎는 ‘동지’로 표기되었는데,¹⁹⁾ 김병태가 상업학교 동문이 아니었음은 그 표현으로도 시사된다. 그런데도 김병태가 그 사건에 동참했다는 것은 방학과 더불어 일시 귀향해 있을 적의 일이었으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중학졸업 후 귀국해있을 때인 1915년 봄에 김인태는 박재혁 · 오재영 · 박흥규 등과 밀의하고 부산진의 10여 명 죽마고우를 규합해 비밀 결사를 조직하여 ‘救世團’이라 이름 지었다. 매월 등사판으로 잡지를 펴내 경남 각지 소년동지들과의 의기소통 수단으로 삼고 수시 교양강좌도 개최하던 이 조직에서 김인태가 오재영과 함께 재정(부담)을 맡았다. 또한 밀양의 김원봉을 부산으로 오게 하여²⁰⁾ 며칠간 담론 후 단원으로 가입시켜 각지선전을 맡겼다고도 한다. 그러나 반년 후 초가을에 구세단 조직이 경찰에 탐지 발각되어 가택수색을 당하고 오재영의 집에 두었던 등사판이 압수되었다. 더불어 김인태 · 박재혁 · 박흥규 · 오재영 4인이 붙잡혀갔는데, 일주일간 혹독한 고문을 당하다 부모들이 애쓴 덕분에 방면되었다. 구세단 해산을 조건부로 해서였다.²¹⁾

19) 『항일투사 蘇庭 崔天澤』, 179쪽.

20) 1914년 봄에 김원봉이 국내 명산승지를 찾아 무전여행을 떠났을 때 부산에서 만난 김철성과 “장래 國事を 위하여 서로 목숨을 아끼지 않을 것을 굳게 맹세”했다고 한다(박태원, 『약산과 의열단』, 깊은샘, 2000, 18쪽). 뒤에 가서도 나오지만, 이 ‘김철성’은 김인태의 다른 이름인 ‘김쇠울’의 한자식 표기였다.

21) 이상의 구세단 관련 서술은 吳澤(‘오재영’의 개명 후 이름)이 1947년에 자신의 생애를 회고해 연도별로 상술해놓은 유고의 ‘19세 시, 1915년’ 條(김삼근 편, 『부산출신 독립투사집』, 박재혁의사비건립동지회, 1982, 88쪽)를 따르면서 약간 재구성한 것이다.

이와는 좀 다르게, 구세단 조직 시점이 1914년 봄이었고 조직원은 박흥규, 김병태, 王致得, 김영주, 張志亨, 趙榮相 등을 포함하여 17명이었으며 피검자도 최천택을 포함해 5명이었다는 얘기도 있다(『항일투사 蘇庭 崔天澤』, 179쪽). 그런데 최천택(유고), 『日帝下の獨立鬭爭記』에는 구세단 이야기가 아예 없다. 이 점을 고려하면, 구

그 후에도 형사들이 종종 찾아와 괴롭히곤 했다. 이에 김인태는 세계 일주 무전여행을 결심하고 왕치덕·오재영과 함께 밀양의 김원봉을 찾아갔다. 그러나 그가 외지출타 중이어서 4,5일 머무르며 기다렸는데도 종내 나타나질 않으니, 김인태는 대구 쪽으로 가고 다른 두 사람은 귀가 하였다.²²⁾ 그때 그 3인이 밀양강의 남천 가에서 찍은 작별기념 사진이 현전한다.²³⁾

2. 중국으로의 망명

1915년 겨울에²⁴⁾ 김인태는 자나 깨나 미국행을 꿈꾸며 소요자금을 마련해온 박재혁과 함께 중국 상하이로 갔다. 박재혁은 수개월 머무르다 친척 朴國善의 대여금 반환 독촉으로 귀국한 반면에, 김인태는 전차 차장 감독을 하며²⁵⁾ 계속 재류했다 한다.²⁶⁾ 훗날의 일제관헌 조사에서는 “1915년에 상하이로 가서 우쑹(吳淞)의 통지대학(同濟大學)에 입학해 2년간 공부하고 졸업했다”고 진술하였다.²⁷⁾

한편, 아우 병태는 1916년 4월에²⁸⁾ 도쿄(東京) 우시고메구(牛込區)의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에 들어가 1917년 3월까지 공부하다 4월에 중국 지린성(吉林省)의 훈춘(琿春)으로 옮겨가 9월까지 ‘출국유학’을 준비했다 한다.²⁹⁾ 그리고는 도쿄로 돌아와 복학하고 그 해 10월부터 1918

세단에 관해서는 오택의 회고가 사실에 더 가깝고 신뢰할 만하다고 본다.

22) 김삼근 편, 『부산출신 독립투사집』, 89쪽.

23) 이 사진은 널리 알려졌고 유통도 되고 있으니 여기에 옮겨 실질 않는다. 이 3인과 김원봉은 1946년 부산에서 해후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다. 이 글 말미의 <그림 2>가 그것이다.

24) 김삼근 편, 『부산출신 독립투사집』, 90쪽. 1917년 6월이었다는 설도(『항일투사 蘇庭崔天澤』, 180쪽) 있다.

25) 김삼근 편, 『부산출신 독립투사집』, 103쪽.

26) 김삼근 편, 『부산출신 독립투사집』, 89쪽.

27) 「金仁泰 등 체포의 건」(1935.4.26), 『韓國獨立運動史 資料』 20(臨政篇 V).

28) 이것은 이력서(2)에 따르지만 이력서(1)에는 1915년 9월로 적혔다.

년 12월까지 正科 2년급을 이수했다고 밝혀 적었다. 요컨대 그는 와세다대학 2년 중퇴라는 학력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1918년 12월, 그러니까 ‘歐州戰亂’(제1차 세계대전) 종결 한 달 후에 김병태는 돌연 중국으로 떠나갔다. 이력서에는 그가 상하이로 직행하여 중국어문을 학습한 것처럼 적혔지만, 유고 및 회고문의 서술은 그와 좀 다르면서 상당히 구체적이다. 그러니까 도쿄유학 시절에 친우가 된 중국인 사관생도 王氏의 고향인 후난성(湖南省) 리링현(醴陵縣)으로 동행했고 거기서 군사학교 입학 준비를 위한 중국어문 傳習을 했다는 것이다. 같은 대목에서 그는 “어릴 때부터 국수주의적 가정교육을 받은 저는 이족통치에 대한 반향심[이] 더욱 높아졌다. 부친의[이] 경영하던 농업과 기업은 예외 없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경제정책의 희생품이 되어 결국 半地主-半企業의 가정은 半小作-半小商人으로 전락하였다”고 적었다. 1917년 만주 왕래와 1918년의 대학 중퇴 및 돌연 중국행의 심

- 29) 이는 1917년에 최천택이 김병태와 장지형에게 구세단 재건 및 결정적 시기의 무력봉기 계획을 설명한 후 만주 훈춘현의 ‘黃炳吉 장군’에게 밀파했고 양인은 황병길에게서 유사시 돕겠다는 언약을 받고 1년 6개월 만에 歸釜했다는 얘기와(『항일투사 蘇庭崔天澤』, 180쪽) 얼마간 부합해 보인다.

1883년(일설로는 1885년) 함경북도 경원군 태생인 황병길은 北靑鎮衛隊에서 下士로 근무하다 군대해산 직후인 1907년경에 연해주의 煙秋로 이주했고, 李範允의 山砲隊에 들어가 대일 의병활동에 가담했다. 또한 安重根 등의 斷指同盟에도 막내로 참여했다. 1911년 연해주에서 북만주 훈춘으로 재이주한 그는 琿春巡警局에 들어가 활동공간을 확보해놓고 독립군 양성과 무기구입을 위한 자금모집에 진력했다. 그러다 琿春義勇隊를 조직하고 사령관이 되어 맹활약함으로써 ‘훈춘 호랑이’라는 별명도 얻었다(김주용, 『황병길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7, 2010). 그렇지만 이런 이유만으로 최천택이 일면식도 없었을 황병길에게 김병태와 장지형을 보낸 것은 아니어 보인다. 만주 주둔 일본군 사령관 우에하라 겐타로(上原元太郎)의 통역관으로 있던 당숙 崔尙運이 1910년 한일합병에 분개하여 우에하라를 사살하려다 실패하고 북간도로 피신하자 당숙모 卞鳳今만 딸을 데리고 경성으로 와서 살고 있었음에(『항일투사 蘇庭崔天澤』, 184쪽), 혹시 황병길의 휘하에 들어가 있을지도 모를 최상운의 소식을 알아보려는 의도도 있었을 터이다. 실제로 양인은 1920년에 大韓(北路)軍政署에 같이 소속되는데, 황병길은 募捐隊長, 최상운은 士官練成所 교관으로였다(박환, 『北路軍政署의 成立과 活動』, 『國史館論叢』 11, 1990, 53쪽).

리적 배경과 경제적 이유를 뭉뚱그려 밝혀놓은 셈이다.

Ⅲ. 김인태의 독립운동 참여와 좌절

1. 3.1운동 준비과정 참여

김병태의 중국행 두 달 후인 1919년 2월 초순에 형 인태는 역으로 중국에서 부산으로 들어왔다. 열흘 전쯤의 광무황제 급서 원인에 대해 여러 풍설이 나돌면서 민심이 흉흉한 때였다. 친우 오재영을 찾아가 밤새 나누는 얘기로 미루어보면, 미구에 벌어질 일대 독립운동 관련으로 비밀 연락 및 모금을 위해 잠입한 것이었다.³⁰⁾

실은 그 2월 중에 상하이 新韓靑年黨의 당원 여러 명이 3.1운동 준비와 관련하여 국내 각처로 밀파되고 있었다. 그들은 주요 도시의 여러 인사를 만나 독립운동을 협의하고 운동자금을 모집해 상하이로 돌아갔다. 예컨대 鮮于燮(평안북도), 金澈(서울), 徐丙浩·金淳愛·白南圭(대구와 서울) 등이 그러했다.³¹⁾ 김인태의 잠입 귀국도 그들과 같은 임무를 띠고서였던 것인지, 그 또한 신한청년당원이었는지는 자료로 확인되는 바 없다. 하지만 후술될 것까지 포함하여 일련의 그의 행보로 보면, 그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재영을 만나본 김인태는 먼저 상경했고, 뒤따라 오재영이 2월 20일

30) 김인태가 “세계 대세로부터 조선독립까지 일관한 설명”을 밤새도록 하였고, 그 얘기를 듣고 난 오재영은 그와 동반 상경해서 “조선독립운동을 대강 해놓고 상하이로” 가리라 작정하고 자금준비에 즉각 나섰다고 한다. 김삼근 편, 『부산출신 독립투사집』, 104~105쪽 참조.

31) 상세 내용은 신용하, 「신한청년당의 독립운동」, 『한국근대민족운동사 연구』, 일조각, 1988, 187~189쪽. 정병준, 「중국 관내 신한청년당과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65, 2019, 47~53쪽을 같이 볼 것.

경에 상경했다. 그런데 김인태는 “사태가 위급하여 국내요인을 신속 방문하고 안동 경유 상해로 먼저 가니 뒤에 오라”는 편지를 남긴 채 떠나가고 없었다.³²⁾ 그런 한편으로는 최천택이 김인태로부터 일본 모지(門司)에서 만나자는 통신을 2월 20일에 받고 다음날 부산을 떠나 22일 모지에 도착해 어느 여관에서 상봉했다고 한다.³³⁾ 김인태가 상하이행 선편을 기다리는 중이었던 것도 같다. 아무튼 거기서 최천택은 3월 1일에 전국적으로 벌어질 독립만세운동에 대한 말을 듣고 바로 다음날 귀국하여 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알리고 참여 독려도 했다 한다.³⁴⁾ 오재영의 회고와 짝을 이루면서 서로 보강해주는 내용이다.

2. 파리강화회의의 한국대표부에서의 활약

김인태는 1919년 3월중에 프랑스 파리를 향해 상하이를 떠났다. 파리 강화회의에서 한국독립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독립을 청원키 위한 민족대표로 신한청년당에서 선임한 이사장 金奎植이 2월 1일에 먼저 출발했었다. 그러니까 김인태의 파리행은 3월 13일 파리에 당도해 임무수행 준비에 들어간 김규식의 독행분투에 힘을 보태줄 지원인력으로였다. 김규식이 특별히 지명했거나, 신한청년당에서 김인태를 선발해 보냈거나, 둘 중 하나였을 것이다. 어느 쪽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전자의 경우였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³⁵⁾

김인태가 파리에 도착한 때는 5월 초순이었다고 한다.³⁶⁾ 김규식의 여

32) 김삼근 편, 『부산출신 독립투사집』, 105쪽.

‘사태가 위급하여’는 일본으로 파견되었던 張德秀가 유학생들과의 접촉 후 서울로 잠입했다가 체포된 것(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6, 1973, 893쪽; 신용하,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사회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173쪽)을 가리키는 함축적 표현이었을지 모른다.

33) 『民主衆報』 1947년 3월 1일자, 「3.1抗爭 當時의釜山(上)」 참조.

34) 최천택(유고), 「日帝下の獨立鬭爭記」, 143쪽; 「항일투사 蘇庭 崔天澤」, 181쪽.

35) 김규식이 1881년 경상도 동래 태생이었다는 사실이 이 부분에서 참고 된다.

정에는 45일이 소요되었는데 김인태도 그 정도의 시일이 걸렸다면, 그의 상하이 출발 시점은 3월 중순경, 그러니까 김규식의 파리 도착 직후였다고 보아도 무리 없을 것이다.

파리에서 김규식은 수립된 직후의 임시정부로부터 외무총장 임명을 전보로 받고 하루 뒤인 4월 14일에 임시 하숙집을 떠나 샤토뉝(Châtaudun)街 38호의 작가 에밀-레이몽 블라베(Émile-Raymond Blavet)의 아파트로 이주하였다.³⁷⁾ 그리고 거기에 ‘평화회의의 한국인 대표부’를 설치하고 ‘한국통신국’(Bureau d’information Coréen)을 병설했다. 이어서 스위스의 취리히대학에 재학 중인 李灌鎔을 급히 초치해, 5월 18일에 도착 함류하니 서기장으로 임용하고 대표부 사무를 전담시켰다. 그래서 김규식과 이관용은 임시정부로부터 ‘평화회의의 대한민국 위원 겸 駐파리위원’(각각 정위원과 부위원)으로³⁸⁾ 임명되었다. 뒤이어 6월 초 이래로 황기환, 趙素昂, 呂運弘이 거의 한 달 간격으로 각자 파리로 와서 대표부 업무를 도왔다.

1919년 4월 26일에 수신자를 ‘단장님께’(Monsieur le Directeur)로 일괄 호칭하는 프랑스어 打字文 공한이 한국통신국 명의로 발송되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최근 몇 달 동안 한국의 독립운동이 확대되자 한국독립민족연맹(Union Nationale d’Indépendance Coréenne)은 유럽에 통신국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리에 본부를 두는 통신국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유럽 언론에 지속적으로 알릴 것입니다. 현재 한국을 지배하는 자들의 진짜 정책을 밝히고, 한국 문제와

36) 巴黎通信局 編纂, 『歐洲의 우리事業』, 1920, 17쪽;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3, 원문편 117쪽.

37) 이장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한국대표부’의 외교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0, 2020, 54쪽 참조.

38) 1920년 黃圮煥이 『歐洲의 우리事業』에서 歐美委員部 안의 파리위원이라는 의미로 ‘파리위원부’로 호칭한 것이 굳어져왔는데,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駐파리 대표부/단’이었다. 그러므로 이하 이 글에서는 ‘파리대표부’로 표기한다.

관련된 모든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바로 우리 통신국이 표방하는 목적입니다.” 이어서 한국문제가 유럽 諸國의 극동정책의 관건도 될 만큼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호소와 함께, “향후 정기적으로 소식지를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는 당부로 끝을 맺었다.³⁹⁾

편지 맨 아래에 필기로 ‘par Kim T’ang’이라고 서명되었는데, 이 ‘김탕’(金湯)은 김인태의 파리 시절 이명이었다.⁴⁰⁾ 그런데 그 기명은 김인태의 파리 도착 이전의 것이었다는 점에서, 실은 김규식이 대표 본인 명의가 아닌 통신국 실무선의 발신자 명의를 적당히 정해놓고 대리서명한 것이었다고 봄이 옳겠다. 능숙한 프랑스어로 된 그 서한의 작성자도 실은 김인태가 아니라 김규식이었거나, 후자가 영어로 작성한 초고를 그의 비서로 현지에서 고용된 마티앙 부인(Mme. Mathian)이⁴¹⁾ 번역해주었을 개연성이 크다. 아무튼 김규식은 재미 임시대통령 李承晩에게 보내는 5월 25일자 편지에 “이관용 외에 김탕이라는 젊은 학생이 있는데, 김군은 전반적인 세부과업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⁴²⁾고 썼다.

그렇게 김탕의 서명이 들어간 한국통신국의 공한이 4월 28일과⁴³⁾ 5월 28일자의 장문 『通信箋』(Circulaire) 제8호, 6월 11일자인 제9호, 6월 12일자인 제10호까지 이어졌다. 『통신전』은 매호 2천부씩 발행되었다. 그러다 조소앙이 도착할 무렵이던 6월 23일자의 제11호부터 8월 27일자의 제18호까지는 김탕의 이름과 서명 없이 통신전이 찍혀 나왔는

39)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4(대유럽외교 II), 원문편 3쪽 참조.

40) 김규식이 미국유학 후 1913년 중국으로 망명하면서 쓰기 시작한 이명으로 ‘金成’이 있었는데, 그것과 이 ‘김탕’과의 연관성도 떠올려볼 수 있겠다.

41) 이장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한국대표부’의 외교활동」, 55쪽 참조.

42) 「김규식이 이승만에게 보낸 서한」(1919.5.2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3(서한 집II). 인용하면서 번역을 필자가 약간 고쳤음.

43)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4, 원문편 4~5쪽 참조.

데,⁴⁴⁾ 그 연유는 불명이다.

5월 10일 파리대표부는 영어와 프랑스어로 작성된 <한국인민 控告書> (The Claim of the Korean People and Nation)를 인쇄하여 강화회의 의장과 영국 수상 외 각국 수반들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월슨의 ‘평화 원칙 14개 조’는 유아무야로 사라져버린 채 ‘평화회의’는 승전국들의 전리품 배분에 급급했다. 그 와중에 한국문제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파리대표부는 6월말에 미국대표단에게, 7월말에는 프랑스 동양정치연구회에서 한국문제를 보고하고 연설회도 가졌지만,⁴⁵⁾ 소득은 별무였을 것 같다.

3. 미국행과 그 후의 동향

1919년 8월 8일에 김규식은 김탕과 여운홍을 대동하고 파리에서 미국 워싱턴으로 향발했다. 정부 발행 공채권에 공동서명토록 속히 미국으로 오라는 이승만의 재촉도 있었지만, 겸하여 그간의 활동내역을 보고하고 의견을 들어 참고할 필요도 있어서였다. 석 달 후 임시정부의 신임 외무총장에게 보내는 보고서한에서 김규식은 그때의 동행자를 ‘파리에서 대표단을 돕던 학생’이라고 언급하면서 ‘김탕’이 본명이고 “ 스스로 지은 호는 쇠울”이라고 소개하였다.⁴⁶⁾ 여운홍도 훗날 자신의 ‘파리시대’를 회상하는 글에서 1919년 한국대표부의 역원들을 한사람씩 거명하는 중에 ‘중국유학생 김쇠울’도 들었다.⁴⁷⁾

‘쇠울’을 한자로 표기하면 김원봉이 해방 후의 회고에서 수차 언급했던 ‘(金)鐵城’에 해당한다. 그 회고에서 김원봉은 자기가 1919년 당시

44)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3, 원문편 10·12·15쪽 및 16~41쪽 참조.

4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3(대유럽외교 I), 원문편 121쪽.

46) 『파리평화회의의 대표부 공문 제2호: 경과보고』(1919.11.26),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6(외무부), 원문편 218쪽 참조.

47) 呂運弘, 『나의 巴里時代 10여 년 前을 回想하면서』, 『三千里』 1월호, 1932, 32쪽.

신한청년당의 외교론에 반대하면서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라기보다는 밀사를 한 명 보냈는데, 일본대표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를 암살할 자객으로였다고 했다. 자객 밀사가 된 이는 1914년 자기가 무전여행을 떠났을 때 부산에서 만나 “肝膽相照하였던 김철성”이라고 김원봉은 실명을 공개했다. 하지만 파리 도착 후 기회를 보아 거사하려던 김철성은 행장 속의 권총과 실탄이 ‘어느 동포’의 사전조치로 사라져 없어져버려서 실행을 못한 채 창황히 파리를 떠났다고 김원봉은 덧붙였다.⁴⁸⁾

하지만 이 회고담은 김철성이 파리에 갔었다는 것 말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거의 허구였다고 봐야 한다. 회고 바로 뒤에 “그 이듬해—1919년 2월에 약산은 남경을 떠나 봉천으로 향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김철성의 파리행은 1918년이 아니라 김원봉이 평텐(奉天)을 거쳐 지린으로 간 때보다 한 달쯤 뒤의 일이었다. 그러니 일본밀사 암살 준비는커녕, 김원봉과 김인태 사이에 그런 논의나 주문이 있기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파리에서도 김철성/김탕/김인태는 임시정부 휘하 파리대표부의 통신국 요원으로서 섭외·홍보의 직무에 충실했지, 암살행동을 시도할 만한 정황이 아니었고 그럴 여유도 없었을 것이다.

아무튼 8월 22일 뉴욕에 도착하여 미국 땅을 밟은 김탕 일행 3인은 徐載弼이 재류 중인 필라델피아를 거쳐 워싱턴으로 갔다. 거기서 김규식은 이승만의 직권임명에 의해李大衛·鄭翰景과 더불어 신설 구미위원부의 위원이 되었다. 1년 후 1920년 10월에 김규식은 중국으로 돌아갔고, 동년 4월 이전에 여운홍도 상하이로 돌아갔다.

혼자 미국에 남은 김인태의 그 후 행적은 알려진 것이 거의 없고 추적도 어렵다. 다만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의 인구조사부에서 만들어놓은 <在美同胞人口登錄> 양식에 ‘金쇠울(Soiul)’ 명의로 작성한 자필 등록부가 있었음은 확인된다.⁴⁹⁾ 등록일자는 ‘四二五이년’ 즉 1919년 8월

48) 박태원, 『약산과 의열단』(깊은샘 판), 23~25쪽 참조.

24일이니, 미국 도착 직후였다. 연령 23세, 직업은 학생, 등록지는 뉴욕, 현주소는 뉴욕주 뉴욕시 도옌(Doyen)가 6번지로 적혔다. 원적은 “경상도 부산부 좌천동”이며, 본국 가족의 호주 란에는 “아버지 김종덕, 연령 51, 직업 농사”로 기재되었다. 그 후 1924년 2~3월경에 대한인국민회 회비를 ‘김쇠울’ 명의로 10달러 냈음이 신문기사에서⁵⁰⁾ 보이기도 한다.

훗날 1935년에 그는 상하이 일본영사관 경찰서에서 취조 받으면서 자신의 재미 행적을 1923년 9월 시카고대학 입학, 1925년 뉴욕으로 가서 컬럼비아대학 입학, 1928년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에서 중국식당 개업, 1932년 식당을 처분하고 일본을 거쳐 귀국한 것으로 진술하였다.⁵¹⁾ 그렇지만 그 학력을 확인시켜 줄 객관적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1925년부터 留美朝鮮學生總會의 기관지로 간행된 연간잡지 『우라키(The Rocky)』에 실리던 각년도 졸업생 일람표, 학사논문 주제 일람, 학생총회 임원 명부, 유학생 소식을 담은 「잡기」란, 그 어디에도 그의 이름(김인태, 김탕, 김쇠울, 김철성)은 나오지 않는다.⁵²⁾ 또한 유학생총회가 1922년부터 간행한 영문월간지 『The Korean Student Bulletin』(한국학생회보)에 수록된 바의 임원진(회장, 부회장, 서기, 각 부장), 기관지 편집진 및 통신원과 기고자 명단, 그리고 다른 자료들로 파악되는 바 유학생총회 주최 각종 집회의 연사나 토론자 명단에도⁵³⁾ 그의 이름은 없

49) 이 등록부는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편, 『미주국민화자료집』 4(2005), 331쪽에 영인되어 있다.

50) 『신한민보』 1924년 3월 6일자(2면), 「의무금」.

51) 「金仁泰 등 체포의 건」(1935.4.26), 『韓國獨立運動史 資料』 20(臨政篇 V). 그 사이 1927년 1월경에 그는 잠시 귀국해 機張郡 출신인 동갑의 朴畢愛와 결혼한 것 같다(「김종덕 제적부」 참조).

52)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에서 1999년에 영인해 펴낸 『북미유학생 잡지 우라키(The Rocky)』 1: 제1호~제3호(1925~1928)와 2: 제4호~제7호(1930~1936)를 살살이 조사해본 결과이다.

53) 두 종류의 이 명단은 김선아가 조사·집적하여 정리해본 결과가 담긴 표들에 의거한다. 그의 「北重大韓人留學生總會의 조직과 활동」(『한국독립운동사연구』 70, 2020)을 볼 것.

다. 이러한 점들은 그의 자술 학력이 과연 사실이었는지에 강한 의심도 들게끔 한다.

한인유학생총회는 1923년 뉴욕에서 시카고로 본부를 옮겼는데, 김인태의 시카고대학 입학과 같은 시점이었다. 그해부터 1925년까지 시카고대 학생으로서 유학생총회 중앙조직 임원이던 이는 행정부의 염광섭(23~24 회장), 조희영(25 회장), 황창하(23 서기, 25 영업부장)과 이사부의 장세운(23~25 이사장) 등이었다. 그리고 김인태가 다녔다는 컬럼비아대학의 1926년과 1927년도 임원진에는 재학생으로 장덕수(26~27 부회장), 김도연(26 사교부장), 윤치영(26~27 체육부장), 황창하(27 사교부장), 김영수(27 이사장) 등이 있었다.⁵⁴⁾

그 대부분은 이승만의 동지회 · 교민단 계열이면서 기호와 인사 중심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서북 출신 유학생들은 대부분 홍사단에 참여하고 있었는데,⁵⁵⁾ 혹시나 하고 찾아보지만 홍사단 단우 명단에도⁵⁶⁾ 김인태와 그의 이명들은 일절 나오지 않는다. 1925년 3월 임시정부가 대통령 이승만 탄핵과 더불어 ‘구미위원부 폐지’령도 같이 반포했는데, 1927년 6월 뉴욕에서 열린 제2차 동부유학생대회에서 재미유학생총회 동부지부는 이승만을 지지하면서 구미위원부 인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냈다.⁵⁷⁾

이 지점에서 우선 착목해볼 점은 김인태가 기호파에 속하지 않음과 동시에 서북파에 속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는 ‘금규식의 사

54) 이 명단은 김선아, 『北美大韓人留學生總會의 조직과 활동』, 105~106쪽의 표들에서 뽑아본 것이다.

55) 같은 글, 111쪽 참조.

56) 필자가 찾아본 자료는 『島山安昌浩全集』 제10권(도산안창호선생전집편찬위원회, 2000)의 「제3부, 홍사단우 이력서」(545~1005쪽)와 홍사단운동 70년사 편찬위원회, 『홍사단운동 70년사』(홍사단출판부, 1986), 619~646쪽의 「단우 명단, 이다.

57) 『신한민보』 1927. 6. 23. ‘동부학생대회의결안’. 김선아, 『北美大韓人留學生總會의 조직과 활동』, 126쪽도 같이 참조.

람'으로 자타 공인되고 있었을 것이다시피, 또한 1920년 김규식의 중국 귀환 때 이미 예측되었을 바와 같이, 정치적으로 이승만을 지지할 입장도 전혀 아니었다. 따라서 그는 북미대한인유학생총회 특히 그 동부지부의 인사들과 적극 교류하거나 친밀해지면서 그 행동노선에 동조할 여지가 전무했다. 그 점에서 그는 미주 유학생사회에서 철저히 아웃사이더일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그 자신이 자발적 주변인(marginal man)처럼 의식적으로 거리를 취해 떨어져 지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김인태가 철저히 생활인으로만 자기정체성을 한정지으면서 민족의식이 희박해졌다거나 독립운동으로부터 멀어져갔다고 볼 수는 없다. 1932년 3월 1일 오후에 그가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자택으로 그곳 재류 동포 3인을 초치하여 3.1절을 맞는 감상을 서로 얘기하면서 기념행사로 삼았다는 기사를⁵⁸⁾ 보더라도 그렇다. 그와 같이 시카고도 뉴욕도 아닌 피츠버그에서 “다년간 영업하던” 김쇠울 부부는 1933년 1월 귀국길에 올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여객선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 귀향하였다.⁵⁹⁾

IV. 김병태의 독립운동과 그 추이

1. 1920년대 의열단운동에의 투신

이제부터는 다시 김병태에게로 눈을 돌려보자.

그는 1919년 12월에 리령을 떠나 상하이로 갔고, ‘소년시절부터의 친구’였다는 김원봉과 해후했다. 김원봉은 의열단의 첫 국내거사에 쓸 폭

58) 『신한민보』 1932. 3. 10., ‘피쓰버그 동포의三一기념’.

59) 『신한민보』 1933. 1. 19. ‘김쇠울씨 귀국에 등영’. 귀국 후 김인태의 동정은 IV장 3절에서 따로 서술하겠다.

탄을 구입코자 12월에 郭在驥 · 李成宇와 함께 지린에서 상하이로 와있었다. 김원봉에게서 장대한 ‘암살과괴운동’ 계획을 들은 김병태는 그 상에 감동하여 1920년 1월에 입단했다. 그 둘이 의형제를 맺은 것도⁶⁰⁾ 그 무렵이었던 것 같다.

김원봉과 김병태가 상봉 후 처음 해낸 일은 1920년 9월의 박재혁의 거를 추동해 성공시킨 것이다. 1915년 김인태와 함께 상하이로 갔다가 이듬해 귀향했던 박재혁은 1918년에 다시 출국해 싱가포르로 건너가서는 무역회사 미쓰이물산(三井物産)의 현지 지점에 취직했고, 얼마 후 필리핀 출장소로 전근되었다.⁶¹⁾ 그러던 중 1920년 3월에 인삼판매 관계로 상하이로 출장 갔다가 연락이 닿아 김원봉 · 김병태와 상면했다. 4월에 다시 상하이로 간 박재혁은 3개월 정도 지내다 7월 19일에 귀향했는데, 그 사이 어느 때가 의열단에 가입했다고 여겨진다.

7월 29일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밀양폭탄사건’ 수사결과 발표와 그 보도가 있는⁶²⁾ 직후에 김병태가 박재혁에게 우편환으로 보내는 100원이 친우 김영주에게로 배달되어 왔다. “언제 어디서든 招會에 반드시 응한다”는 의열단원 공약 제7조가 상기되는 바였다. 그 돈을 전달받아 여비로 충당한 박재혁은 8월 6일 부산을 떠나 다시금 상하이로 갔다. 그리고는 김원봉과 재회한 자리에서 투탄의거 실행을 요청받자 수락하고, 부산경찰서를 타격하기로 결의했다. 러시아로부터 유입된 鑄鐵製의 원통형 폭탄 1개와 준비자금 300원을 건네받은 박재혁은 8월 31일 상하이를 떠나 9월 7일 부산으로 들어왔고, 마침내 9월 14일에 부산경찰서를 들이쳤다.

60) 이 사실은 『義烈團關係幹部訓練班第六隊の狀況に關する件』의 <訓練團關係容疑者名簿>, 7쪽; 『軍官學校事件ノ真相』(1934), 53쪽; 『高等警察報』 제4호, 1935, 84쪽에 공히 서술되어 있다.

61) 김삼근 편, 『부산출신 독립투사집』, 103쪽 참조.

62) ‘밀양폭탄사건’의 전모에 대해서는 김영범, 『의열단 창립단원 문제와 제1차 국내거사 기획의 실패 전말』(『한국독립운동사연구』 58, 2017), 24~31쪽에 상설되어 있다.

일련의 이 대일거사 기획과 준비 과정에, 그리고 그에 앞선 입단 권유와 상의에 김병태가 관여했음은 불문가지이다. 목숨 걸고 감행된 이 의거로 부산은 의열단의 암살파괴운동이 첫 개가를 올리는 현장이 되었고, 이것과 석 달 후 崔壽鳳의 밀양경찰서 투탄의거를 발판 삼아 김원봉과 의열단은 ‘제1차 암살파괴계획’의 실패를 만회하고 재기할 수 있었다.

그 후 1925년까지 김병태는 의열단 機密部の 비서로서 “혁명공작에 계속해서 참가”했다.⁶³⁾ 여기서 ‘기밀부’란 1922년 의열단의 조직개편 때 ‘실행부’와 구분하여 5인 간부진만의 극비기구로 설치된 것이며 ‘참모부’로 별칭도 되었다. 그러므로 위의 서술에서는 ‘기밀부’ 부분보다 ‘비서’였다는 사실을 눈 여겨 보아야 한다. 뒤에 가서 보겠지만, 김병태는 의열단이 혁명당 조직으로의 變成을 꾀하던 시기인 1926년부터 1935년까지는 중앙집행위원회 비서주임, 의열단 조직 해소 후 1935년 7월부터 1946년까지는 (조선)민족혁명당 중앙집행위원, 또는 중앙위원회 비서주임을 역임했다. 그 사이 1938년부터 1941년까지는 武漢·重慶 등지에서 朝鮮義勇隊 總隊部 機要室 주임비서 겸 정치지도원으로도 일했다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비서’로 일관되는 행보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일찍부터 그가 김원봉의 신임 두터운 최측근으로서 일심동체처럼 움직여갔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1923년에 김빈 즉 김병태는 의열단 간부임이 일제 기관에 포착되었다.⁶⁴⁾ 비단 간부였을 뿐 아니라, 그의 주거가 의열단 본부의 安家랄까 비밀 아지트가 되고 있기도 했다. 그리 된 데는 그가 1922년 중에 상하이에서 한 중국인 의사의 養子가 되어 중국으로 입적했다는⁶⁵⁾ 사실이

63) 이력서(1)에 의함.

64) 『京鍾警高秘 제16789호의 3, 義烈團員檢舉의件續報』(1923.12.26), 10쪽, 『檢察行政事務에 關한 記錄』 1, 국편 한국사 DB.

65) 일제기관은 이것이 父兄의 말이라고 했다. 앞의 『義烈團關係幹部訓練班第六隊의 狀

작용하고 있었다. 『약산과 의열단』에는 이와 관련되는 대목이 아래와 같이 서술되어 있다.

“[1922년경에: 인용자] 이 집[프랑스조계에 마자르 이름으로 전세 낸 양옥집이고 의열단의 비밀 폭탄공장: 인용자]에는 또 때때로 중국인 노파 하나가 드나들었다. 그는 동리에서 曹老太太[‘조씨 집의 노부인’이라는 뜻의 경칭: 인용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으로 吳淞에 있는 중국방역의원의 원장인 曹思勳란 이의 부인이다. 앞서 파리 강화회의가 열렸을 때 일본대표사절을 암살하러 갔었던 김철성 동지의 양모 격이 되는 노부인이다. 이들 조씨 부처는 의열단의 숨은 동정자였다.”⁶⁶⁾

그러니까 중국인 의사 차오시쿠와 그의 부인이 김철성 즉 김병태의 양부·양모였고 그들은 의열단을 은밀히 도와주었다는 얘기이다. 실제로 ‘조노태태’는 1923년 2월에 의열단의 제2차 국내강습 거사를 위한 폭탄이 상하이로부터 안동현까지 운반될 때 김원봉·玄桂玉·마자르 등과 동행하여 가족유람객의 일행으로 가장해주었다. 그럼으로써 의열단은 관헌의 눈을 피하여 폭탄 가방을 무사히 안동까지 옮겨갈 수 있었다.⁶⁷⁾ 그리고 이런 인연으로 김병태는 양부의姓을 따라 ‘曹國棟’이라

況に關する件」(1934.3.23)의 <訓練團關係容疑者名簿>, 7쪽.

66) 박태원, 『약산과 의열단』(깊은샘 판), 101쪽.

67) 김영범, 「기생에서 혁명가로, 玄桂玉의 사랑과 자기해방의 고투」, 『지역과 역사』 제 45호, 2019, 285쪽 참조.

상하이에서 텐진·베이징을 경유해 안동까지 이동해 간 이 ‘가족유람객 일행’에 대해 일제 관헌이 강한 의심을 품었는지 각방으로 추적 조사를 했던 것 같다. 그 결과 물로 보이는 보고가 다음과 같이 있었다. “北京 新開路 20호 支那人 曹某는 취조 결과 본성명은 曹晨濤(四川人)으로 록펜러협화병원의 의사로서 혁명당원에 속하고 그의 어머니 조씨 또한 혁명당원으로서 늘 김원봉을 비호하여 여러 가지 편의를 주고 있다 함. 그의 집에는 김원봉이 때때로 숨어사는 일이 있고, 언제나 양복 입고 다니는 하이칼라인 金斌이란 자가 曹의 양자인지 아닌지는 불명이지만 그 자의 방에 동거함은 사실임.”(木藤克己, 「義烈團團長金元鳳に關する件」(1924.1.23), 『不逞團關係雜件

는 중국식 이름을 하나 더 쓰게도 되었다.

더 확실한 정보는 한참 뒤에 나왔다. 1925년 여름경에 의열단의 본부가 상하이 시외 江灣에 있었는데, 그 집은 ‘上海방역의원장 曹某’의 처가인 것을 김원봉의 비서 金斌⁶⁸⁾ 빌려서 본부로 정하고 있었다는⁶⁹⁾ 것이다. 그 무렵 의열단에 가입해 있던 金梓瀟이 김빈의 집을 누차 출입

—朝鮮人ノ部一別冊 義烈團行動』). 얼핏 보면 사태의 진상에 매우 접근했고 거의 전부 사실인 것 같지만, 김빈이 베이징에서 曹晨濤라는 의사의 집에 동거하고 있을 리는 없었다. 그래서일까? 김빈이 그의 양자인지 아닌지는 불명이라고 슬쩍 넘어갔다. 결정적인 오류는 曹晨濤와 曹思勉가 전혀 다른 인물이었다는 데서 찾아진다. 전자는 1893년 상하이 태생으로 상하이대학과 중국 하버드의학원 예과에서 수학한 후 1918년부터 1921년까지 미국 하버드대학 의학원을 다녔으며 1921년부터 1929년까지 베이징 協和醫院의 외과주임이었다(《百度百科》의 <曹晨濤>(https://baike.baidu.com/item/%E6%9B%B9%E6%99%A8%E6%B6%9B/10950942?fr=aladdin; 검색일: 2021.10.9). 그렇다면 위의 木藤克己 보고서에 나오는 曹晨濤와 동일인일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그런데 曹思勉는 1918년 10월 상하이에 전염병이 번졌을 때 방역의사로 활약했으니(彭曉亮, 『百年前, 他們臨危逆行: 歷史中的上海救疫醫療隊』, 『上觀新聞』 2020.4.8; 여기서는 中共上海市委黨史研究室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제된 것(http://www.ccphistory.org.cn/node2/shds/n1653/n1654/u1ai35095.html)을 이용함. 검색일: 2021.10.9.), 당시 미국 유학 중이던 曹晨濤와는 동일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曹晨濤의 베이징 집에 김원봉이 때때로 숨어사는 일이 있으며 김빈이 曹晨濤와 동거한다고 보고되었음은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다. 조사가 부실했거나 실적을 의식해 부풀리기 거짓보고를 한 것일 수도 있으리라.

- 68) 1923년 12월 서간도의 무장독립운동단체인 大韓統義府의 군무부(부장 李天民) 서기가 ‘金斌’이었다(關東廳 警務局長, 『機密 제602호, 大韓統義府ノ內容』(1923.12.12), 6쪽,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一在滿洲ノ部』 37). 그 해 여름에 의열단이 장췌린(張作霖) 군벌정권 관리 하의 安奉線 철도 파괴와 沿邊 교란 등의 남만주 거사를 추진하면서 통의부에 연합행동을 제의하여 수락 받았고 이듬해 6월에도 통의부와 의합작으로 일본 내 거사를 추진한 바 있다(자세한 내용은 김영범, 『한국 근대민족운동과 의열단』, 창작과비평사, 1997, 112~116쪽을 볼 것). 그런 연관에서 위의 ‘金斌’이 의열단의 김빈 즉 김병태와 동일인이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하지만 김병태 자신의 이력서나 회고문에는 만주활동 얘기가 일절 나오지 않는다. 그런 한편으로는 1923년 1월경 통의부 소속의 金彬·金一·朴淵·金一成 4인이 각기 권총을 갖고 국내로 침투해 들어와 평남·경성·개성 등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려고 독립사상을 선전하는 형적이 있었다(『統義府員 入境說』, 『東亞日報』 1923.2.2). 이 金彬과 앞의 군무부 서기 金斌이 동일인이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 69) 『金梓瀟 신문조서(제4회)』(경성 종로경찰서, 1936.6.18), 군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45, 국편 한국사DB.

했던⁷⁰⁾ 경험에 근거해 진술한 것이다.

1925년 8월경에 상하이와 베이징 등지의 의열단원 다수가 운동노선의 일대 전환을 염두에 두면서 중국 국민혁명운동의 책원지인 광저우(廣州)로 옮겨갔다. 그때 김병태는 동행하지 않고 柳子明·韓鳳根·金浩(김재형의 이명) 등 5~6명과 함께 상하이에 남았다.⁷¹⁾ 김원봉이 전체 조직 관리와 대외협력 문제를 위해서도 상하이에 믿을 만한 대행자를 두고 있어야 했기에 김병태가 그 역할을 맡도록 조치했을 것이다. 실제로 후자는 일본 무산정당 수립에 대해 축의를 표함과 아울러 상호연결 관계도 모색할 임무를 띠고 도쿄로 파견되기도 한 것으로⁷²⁾ 보인다. 1926년 12월 의열단이 광저우에서의 제2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하여 혁명당 조직으로의 변신을 꾀했을 때도 김병태는 중앙위원 겸 상해특별지부 서기로 피선되어 상하이에서 계속 공작했다고 술회하였다. 하지만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1926년 10월 북벌군이 우창(武昌)을 점령하고 1927년 元旦에 국민혁명군 중앙군사정치학교 武漢分校를 설립하자 김병태는 그리로 가서 ‘趙國棟’이라는 이름으로 정치과 학생이 되었다. 그러면서 의열단 무장지부원임과 동시에 留鄂韓國革命青年會[‘鄂’은 우한이 속한 湖北省의 약칭임]의 회원도 되어 활동하였다.⁷³⁾

70) 『京鍾高秘 제10975호, 中國杭州航空學校二入學セコトスル不逞鮮人檢舉ノ件』(1936.7.11), 19쪽, 『警察情報綴(昭和十一年)』, 국편 한국사 DB.

71) 『高警 第979號, 印刷物送付ニ關スル件』(1926.3.23.),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上海地方』 6의 부속문서인 조선총독부 경무국, 『大正15年3月 上海 南京 廣東地方 不逞朝鮮人ノ近狀』, 21쪽(국편 한국사 DB) 참조. 김호 즉 김재형은 그때 자기와 김병태, 한봉근 3인만 상하이에 남아있었다고 진술했다. 『金梓濤 신문조서(제4회)』(경성총로경찰서, 1936.6.18.),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45(중국지역독립운동 재관기록 3), 1999(국편 한국사 DB).

72) 『高警 第4311號, 義烈團ノ近狀ニ關スル件』(1925.12.5) 및 『亞三機密第36號, 義烈團ノ近狀ニ關スル件』(1925.12.21),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一冊別 義烈團行動』(국편 한국사 DB).

73) 유악한국혁명청년회 비서 權俊의 명의로 중국국민당중앙집행위원회에 보낸 『武昌韓國革命青年會의 成立通報와 要求』(1927.3.18; 秋憲樹 編, 『資料 韓國獨立運動』

1927년 장제스(蔣介石)가 감행한 4.12 정변의 여파로 국공합작의 우한정부가 분열되어 무너지자 우한분교의 조선인 생도들은 教導團으로 편입되어 중공당 조직의 지휘를 따랐다. 그들은 중공당 주도의 8월 1일 난창(南昌)봉기와 12월의 광저우봉기에 잇달아 참가했다가 대거 희생되었다.

김병태도 두 봉기에 참가했는지는 확인 불능인데,⁷⁴⁾ 참가했다라도 중도에 ‘叛變’했다는⁷⁵⁾ 김원봉과 행보를 같이하여 급히 도피했을 것이다. 어쨌든 그는 1928년 초에 상하이에 있었는데,⁷⁶⁾ 국공대결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는 몸을 피해 있으려 했던 것 같다. 1928년 2월에 그는 후난성 리링의 중국인 친구를 찾아가던 길에 우한에 들러 류자명을 만났고, 2월 27일에 한커우(漢口)로 같이 건너가 安東晚(安載煥)·崔圓·崔承淵도 만나보았다. 그런데 28일 아침에 그들은 국민당 기관인 우한공안국에 잡혀가 우한위수사령부 구치소에 갇혔다. 일본영사관 경찰 특무의 농간으로 공산주의자 혐의를 받아서였다. 그로 인한 구류 상태가 6개월이나 이어지다 의열단원 朴建雄이 임시정부의 석방탄원서를 받아와 교섭한 끝에 8월말에야 전원 석방되었다.⁷⁷⁾ 그 후 김병태는 후난성의 친구 집을 찾아가 약 1년간 휴양했다. 그렇다면 그는 1929년 봄

II,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2, 297쪽)의 부속문서인 <會員一覽表> 참조. 당시 우한지역 의열단원들의 동향에 관해서는 김영범, 『한국 근대민족운동과 의열단』, 187~188쪽을 볼 것.

74) 일제기관은 1927년 10월 현재 상하이에 잠복중인 의열단원이 약 20명이라고 파악하고 그 중 확인된 16명의 명단을 열거했다(朝鮮總督府 警務局, 『朝鮮ノ治安狀況: 昭和2年』(神戸: 不二出版 復刻, 1983)의 <不逞運動—上海 南京方面—義烈團> 항). 그런데 거기에 金斌도 들어있었다.

75) 이에 대해서는 김영범, 『한국 근대민족운동과 의열단』, 181쪽 참조.

76) 1928년 2월 20일에 열린 의열단 상해지부 대회에 김원봉 외 14명이 출석했다는데(『동아일보』·『조선일보』 1928년 3월 8일자), 당연히 김빈도 포함되어서였을 것이다.

77) 이력서(2); 류자명, 『나의 회억』,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1984, 103~104쪽; 유자명, 『유자명 수기, 한 혁명자의 회억록』, 독립기념관, 1999, 169~181쪽 같이 참조. 류(유)자명 자료에서의 ‘崔承年’은 崔承淵을 말한다.

에 의열단 본부가 베이징으로 옮겨가 레닌주의정치학교를 개설하고 조선공산당재건운동을 벌이는 데 동참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실제로 그런 동향 관련 문서들에서 그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는다.⁷⁸⁾

2. 1930년대의 후기 의열단운동 참여

1931년 9.18 만주사변이 발발하자 1932년 초에 난징으로 본부를 옮겨간 의열단은 한중합작의 항일운동을 중국국민당 군사위원회의 요로에 제안하고 실천방안도 작성하여 제출했다. 그것이 주효하여 의열단은 三民主義力行社 내 민족부흥위원회의 지원을 받게 되었고, 난징 외곽지에 朝鮮革命軍事政治幹部學校를 은밀히 설립하여 생도를 모집하고 1932년 10월부터 제1기 과정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김병태는 본인이 “1932년 조선혁명간부학교 정치교관으로 被任”되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가 아니고 1933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운영된 제2기 과정의 교관이었다.⁷⁹⁾ 일제경찰 첩보자료에 제2기의 ‘精神學’ 과목 교관명이 ‘曹某’로 나오고⁸⁰⁾ 검찰 조사자료에는 ‘전라도’ 출신 교관 ‘曹某’가 ‘情報學’ 과목을 담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⁸¹⁾ 또한 간부학교 제2기 때의 정치위원 중 한 명이 ‘曹某’이기도 했다.⁸²⁾

78) 회고문에는 1929년 의열단의 사업방향이 다수 동지를 국내와 중국동북으로 파견하여 군중을 조직·훈련하는 방면으로 전개될 것이어서 김병태 본인도 이 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적어놓았다.

79) 『義烈團關係幹部訓練班第六隊の狀況に關する件』(1934.3.23)의 부속문서 <訓練團關係容疑者名簿>, 7쪽; 朝鮮總督府 警務局, 『軍官學校事件ノ真相』(1934), 53쪽.

80) 朝鮮總督府 警務局, 『軍官學校事件ノ真相』(1934), 190쪽, 『高等警察報』 제4호, 125쪽.

81) 社會問題資料研究會 編, 『思想情勢視察報告集』 2, 京都: 東洋文化社, 1976, 253쪽.

82) 다른 두 명은 石正 즉 윤세주와 王現芝 즉 李英駿이었다. 『金邦佑 신문조서(제2회)』(경기도경찰부, 1934.12.15),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31(의열투쟁 4), 한국사DB 참조.

그런데 조씨 성의 교관이면서 의열단계의 인물로 후일 실명이 확인되는 이는 ‘曹斌’뿐이다.⁸³⁾ 이것은 ‘조국동’의姓과 ‘김빈’의名을 조합해 만든 새 가명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빈’이란 김병태의 이명이었던 것이고, 제2기 교관이었음도 재확인되는 것이다. 교관 재임 무렵에 그는 “절대독립의 민족주의자로서 과격사상을 갖고 있는” 인물로 일제 당국에 파악되었다.⁸⁴⁾

‘정신학’이라는 교과목 명은 좀 뜬금없거니와, 철학과나 심리학과가 아닌 이상 개설될 리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가 맡은 과목은 정신학이 아니라 ‘정보학’이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제3기의 정보학 교관은 중국군 헌병 上尉로 재직 중인 潘海亮(李春岩)이었다.⁸⁵⁾ 그의 상시 직임 때문에도 상근교관이 아니라 강의시간에만 다녀가는 강사였겠는데, 그런 사정은 김병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⁸⁶⁾

1934년 3월 1일부터 4일까지 난징 시내 文昌巷의 음식점 六華春에서 韓國對日戰線統一同盟 제2차 대표대회가 개최되었다. 한국독립당·신

83) 1943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朝鮮民族革命黨 中央委員 名單』(秋憲樹 編, 『資料 韓國獨立運動』 II, 248쪽)의 ‘중앙집행위원 중 한 명으로 “연령: 44세. 籍貫: 경상남도. 학력: 일본 早稻田大學 政經科 畢業. 경력: 조선의열단 중앙간부, 조선혁명간부 학교 교관, 本黨 비서주임 역임”으로 기재된 曹斌이 나오는데 김병태의 이명이었음이 분명하다. 1944년 3월 14일자로 閔石麟이 작성한 『臨政·議政院 各黨派 名單』(秋憲樹 編, 『資料 韓國獨立運動』 I, 1972, 323쪽)에도 이와 동일하게 기술되어 있다.

84) 朝鮮總督府 警務局, 『國外ニ於ケル容疑朝鮮人名簿』, 38쪽.

85) 국회도서관 편, 『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篇)』, 1976, 863쪽; 朝鮮總督府 高等法院 檢事局 思想部, 『思想彙報』 제7호(1936.6), 155쪽. 그의 강의안은 첩보업무와 특수공작(정치정탐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情報學概論』, 조선총독부 경무국, 『高等警察報』 제5호, 1935, 82-145쪽), 내용이 전문적이고 소재가 풍부했다.

86) 1934년 6월 현재로 김병태는 “난징 모 군대 連長[한국군 편제의 중대장급: 인용자]이면서 중국 모 군관학교 교관”인 것으로 일제기관에 파악되었다(在上海 石射總領事, 『上海及同關係不逞鮮人團體の件』, 1934.6.19,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料資料』 3(臨政篇 III), 1968; 국회도서관 편, 『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篇)』, 827쪽). 모 중국무관학교에서 기술관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첩보되기도 했다(『義烈團關係幹部訓練班第六隊の狀況に關する件』의 부속문서 <訓練團關係容疑者名簿>, 8쪽).

한독립당·조선혁명당·의열단·미주국민회총회·하와이국민회 등 6개 단체 대표 또는 대리인 12인의 참석으로 열린 회의였다. 그 자리에 의열단 대표로 김병태와 尹世靑·박건웅 3인이 참석했고, “가장 完善한 대동단 결체 조성에 관한 방안을 토의 결정하기 위한 각 혁명단체 전권대표 회의”를 이듬해 3월 1일 이전에 소집하기로 하면서 대회는 종료되었다.⁸⁷⁾ 동맹 성립 후에도 1년 반 동안 지지부진하던 ‘전선통일’ 논의에 드디어 물꼬가 열리는 일대 진전이었고, 다시 1년 후에 단일대당으로 민족혁명당이 창립되게끔 하는 큰 전기가 된 것이기도 했다.

3. 형의 피검과 강제송환이라는 우환

그 무렵 김병태는 뜻밖의 우환을 겪었다. 1년 전 상하이로 와서 취직 운동 중이던 형 인태가 1935년 2월에 일본영사관 경찰에 붙잡혀가 구금되고 만 것이다. 조사 결과 별다른 혐의점이 없음에도 그는 4월에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는 비운에 처했다. 그 전말은 이러했다.

1932년 미국에서 귀국해 있던 김인태는 1934년 1월에 상하이로 건너가 기장 출신의 한국독립당 간부 金料奉의 집에 기거하면서⁸⁸⁾ 아우 병태와도 해후했다. 김원봉과 만났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그가 숨겨서 말을 안했을 뿐이지 실은 감격적인 재회를 했으리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 판단이겠다. 만나서 김인태의 차후 행로에 관해 상의하고 우선은 좋은 조건을 살려 취업하기를 김원봉이 권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래와

87) 『韓國對日戰線統一同盟 제2차 代表大會』, 국회도서관 편, 『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篇)』, 805~807쪽 및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7(조선민족혁명당 및 기타 정당), 7~11쪽 참조. 원 출처는 『신한민보』 1934년 4월 5·12일자, 『대일전선동맹은 각 단체 대표회의로』.

88) 일제 경찰문서에는 이들 형제가 김두봉의 조카로 알려져 있다고 했는데(『義烈團關係幹部訓練班第六隊의 狀況に關する件』의 부속문서 <訓練團關係容疑者名簿>, 7쪽),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같이 김인태의 다음 행보가 아우 병태처럼 군관학교 교관이 되는 길을 찾아나서는 데로 모아진 것을 보면 그렇다.

동년 2월에 김인태는 창사(長沙)로 가서 후난성 류양(劉陽) 군수인 왕잉자오(王英兆)를 만나 내각 차관인 허야오주(賀耀祖)에 대한 소개장을 받았다. 피체 후 경찰에서 그는 왕잉자오를 ‘동료학우의 형’이라고 진술했지만, 아우 병태가 계속 친교해온 후난성 리링 출신의 ‘왕씨’ 본인이거나 그 형이었을 개연성이 크다. 그 소개장을 갖고 4월에 김인태는 난징으로 가서 허야오주를 만나 취직 알선을 부탁했다. 그 결과, 연말에 중앙육군군관학교 교관으로 추천 받고 장찌중(張治中) 교장의 임명 내락도 받았다. 미국대학 졸업 학력과 유창한 영어실력을 높이 사서였을 것이다.

희망에 부풀어 그는 고국의 부인을 불렀고, 상하이로 오는 아내를 마중하러 2월 5일 黃浦灘 부두로 나갔다. 그런데 거기서 그만 불심검문에 걸려 일경에 연행 구금되고, 결국은 ‘2년간 상하이재류 금지’ 처분으로 추방되기에 이르렀다.⁸⁹⁾ 그렇게 강제송환 조치 대상이 되어버린 그는 平安丸 편으로 호송되어 4월 11일 인천항으로 들어왔고, 그 즉시 인천경찰서를 거쳐 경기도경찰부로 압송되어 갔다. 거기서 재차 구금 취조 받은 그는 여하한 사건과도 관련 없음이 판명되고서야 5월 6일 겨우 방면되었다.⁹⁰⁾

4. 조선민족혁명당에서 한국광복군까지의 활동

1935년 7월 민족혁명당이 창건되자 김병태는 중앙위원과 ‘상무위원

89) 「金仁泰 등 체포의 건」(1935.4.26),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 資料』 20(臨政篇 V). 이때 경찰이 파악한 그의 가명 중 하나가 ‘金鍾意’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부친 이름 金鍾惠이 오인 또는 와전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90) 『東亞日報』(1935.4.23), 「上海에서 檢舉한 金仁泰를 押來」; 『東亞日報』(1935.5.11), 「金仁泰氏 放免」 참조.

회 주임비서' 등의 직임으로 난징에서 공작했다고 회고 자술하였다. 하지만 공식자료들에서는⁹¹⁾ 1935년 창당 때의 상기 직임자로 그의 이름이 보이질 않는다. 1936년 8월에 작성된 상하이 일본경찰의 정보자료에는 그가 '김원봉 비서'로 기재되어 있다.⁹²⁾ 그러다 1937년 1월 난징에서 개최된 제2차 전당대표대회에서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고,⁹³⁾ 1938년 5월 후베이성 장링(江陵)에서의 제3차 임시대표대회에서는 중앙집행위원회 후보위원이 된 것으로 보인다.⁹⁴⁾

1937년을 전후하여 상하이 일본총영사관 경찰부에서 파악한 그의 신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 보고되었다. 즉, “신장 5尺 3寸쯤. 얼굴은 길쭉하고 눈이 크며 입은 작고 검다. 머리는 하이칼라. 중국어를 잘하고 南京 五臺山 荳菜橫 5호에 거주함. 김원봉의 비서로, 중국관헌에 보내는 문서의 집필을 담당하고 있음.”⁹⁵⁾

1938년 10월 조선의용대가 창설되었을 때 그는 본부 기요실의 주임

- 91) 상하이 일본총영사관 경찰부 제2과에서 1936년 5월에 작성한 「民族革命黨組織一覽表」, 『思想情勢視察報告集』 3, 30~31쪽; 「江高 제2048호, 朝鮮革命幹部學校(軍官學校)卒業者送局に關する件」(1936.8.24), 『警察情報: 昭和11年』에 첨부된 <朝鮮民族革命黨組織一覽表> 등이다.
- 92) 「主要 獨立運動者の 經歷 및 活動狀況」(在上海 北村內務書記官 發信, 1936.8.15),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 資料』 3(臨政篇 III), 1968; 「重要 韓國獨立運動者 調査」, 국회도서관 편, 『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篇)』, 882쪽.
- 93) 朝鮮總督府警務局,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 昭和13年』, 東京: 巖南堂 복각본, 1966, 278쪽 참조.
- 94) 「在支朝鮮義勇隊の情勢」, 『思想彙報』 22호(1940.3), 161쪽 참조.
이 자료에 '金鉉泰(俊)'이라고 적혀서 金俊과 동일인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후자는 전남 출신으로 황포군관학교 4기 졸업생인 金鍾의 이명이므로 양자는 다른 인물이다. 이 자료에서 중앙집행위원(후보)들의 명단을 나열하면서 가명은 일관되게 본명 뒤의 () 안에 적었는데, 다른 후보위원 명인 '李東華(申岳)'도 본명·이명 관계가 잘못 파악된 경우이다. 이동화는 이때 이미 故人이었으니 실은 신악이 후보였다고 봐야 한다. 그와 같이 '金鉉泰(俊)'도 본명·이명 관계가 잘못 파악된 것인데, 그렇다면 실제 후보위원은 김명태가 아니고 김준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 95) 檢事 芳賀貞政, 「昭和11年夏以降に於ける中華民國在留不逞鮮人團體の情況」(1937.5), 『思想情勢視察報告集』 3, 425쪽; 檢事 佐藤欽一, 「南京陷落後の在支不逞鮮人團體の動靜(1939.2)」, 『思想情勢視察報告集』 9, 81쪽.

비서가 되었고, 그 후 각 전구의 전방공작과 제3支隊의 연안(延安) 이전 등의 사업에 협조했다고 회고 자술하였다. 1940년에는 중국군사위원회의 요청으로 軍令部 受音室에서 일본 同盟通信社의 무선방송 및 통신 녹취문을 번역하는 일을 맡아 1941년 3월경까지 수행했다 한다.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기는 한데, 입증 또는 확인시켜줄 객관적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1941년 10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金朋瀾 의장의 협조로 조선민족혁명당의 의정원 진출이 시도되었다. 그때 김병태는 경상도 의원으로 당선되고 당선증도 받았다.⁹⁶⁾ 그러나 임시정부의 여당이던 한국독립당의 거센 반발과 의장 탄핵 및 ‘非法選舉 무효 선포’로 인해 등원은 저지되고 말았다.⁹⁷⁾

1942년 4월의 임시정부 국무회의 의결과 5월의 중국군사위 명령으로 조선의용대의 한국광복군 편입이 확정되고 7월부터 실행조치가 진행되었다. 그에 따라 김병태는 동년 11월 현재로 이전의 다수 의용대원들과 함께 한국광복군 제1지대 대원이 되어 있었다.⁹⁸⁾

1943년 2월의 조선민족혁명당 제6차 전당대회(‘개조대표대회’)에서 김병태는 중앙집행위원으로 재선되고⁹⁹⁾ 비서직을 맡았다.¹⁰⁰⁾ 그 해 10월, 민혁당이 중앙집행위원회 결의에 의거하여 주석 김규식 명의로 장

96) “議員當選證. 當選人 姓名 曹斌. 年齡 四十四歲. 右員이 大韓民國臨時議政院 慶尙道議員에 當選되었기 此를 證함. 大韓民國 二十三年[1941] 十月 十四日. 慶尙道選舉會 會長 金尙德 印.”(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 資料』 1); 「議員當選證」(1941.10),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5(임시의정원 IV).

97) 「大韓民國臨時政府 公報 제72호」(1941.12.8),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헌법·공보) 참조.

98) 「광복군 제1지대 家屬의 양곡지급에 관한 건」(1942. 11. 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한국광복군 I) 참조.

99) 「조선민족혁명당 간부 명단 및 매월 임시정부로부터 받는 금액」(1944.2),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7(조선민족혁명당 및 기타 정당).

100) 「朝鮮民族革命黨重要幹部簡明履歷表」(1943?), 독립기념관 소장.

건상 외 15인을 印緬戰區工作隊 대원으로 추가 파견하려 했을 때 曹斌 즉 김병태도 동래 출신 陳嘉明(최장학)과 함께 그 일원으로 선발되었다.¹⁰¹⁾ 그러나 추가 파견은 임시정부 및 광복군총사령부 내 한국독립당 측 인사들의 비협조와 중국 외교부의 불허로 인해 성사되지 못하였다.¹⁰²⁾



<그림 1> 1943년 2월, 조선민족혁명당 신임 간부진 속의 조빈(김병태)
(맨 뒷줄 오른쪽 끝)¹⁰³⁾

1945년 3월에도 金斌 즉 김병태는 임시정부가 인면전구공작대 강화를 위해 증파키로 한 광복군 대원 9인 중의 1인이었다. 중국 군사위원회

101) 『印度派遣工作員 十六名에 對한 身分保證』, 秋憲樹 編, 『資料 韓國獨立運動』 II, 224쪽 참조.

102)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2(한국광복군 III), 28쪽; 류동연, 「한국광복군 인면전구공작대의 파견 배경과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 95, 2020, 71쪽 같이 참조.

103) 이 사진은 충청의 조선민족혁명당 본부에서 1943년 ‘미주지부 책임자’인 韓吉洙에게 보낸 것이다. 자세한 설명은 김영범, 「hornbeck(Hornbeck)문서군 속의 韓吉洙 서한과 조선의용대·조선민족혁명당 사진」, 『한국근현대사연구』 96, 2021)을 볼 것.

는 그 중 김빈을 포함한 5인의 증파를 승인했지만,¹⁰⁴⁾ 이번에도 증파는 실현되지 못하였다.¹⁰⁵⁾

5. 8.15 광복 후의 행로

1945년 8월 15일, 일제 패망과 더불어 조국은 광복을 맞게 되었다. 국의 독립운동전선에 투신해 있던 많은 인사들과 그 가족이 꿈에도 그리던 조국 땅을 밟기 위해 속속 귀국하였다. 그러나 김병태는 귀국하지 않았다. 민혁당의 결정으로 그는 留滬工作委員의 1인으로 상하이에 남아서 ‘잔류동지 단속 공작’을 수행키로 되었기 때문이다. 1947년 6월 서울에서 민혁당의 후신으로 人民共和黨이 창립될 때 그는 상해총지부 책임자로 임명되었다.¹⁰⁶⁾ 1946년에 그가 난징에서 병사한 것처럼 알려졌지만 와전된 얘기였다.

1949년 5월에 중공군이 국민당군을 패퇴시키고 상하이로 점령한 후 조선인민공화당의 주도로 朝鮮人民民主聯合會가 새로이 결성되었다. 민주연합회는 1919년 이래로 계속해서 상하이 한인동포 자제들의 기초 교육기관이 되어온 仁成學校를 접수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명칭도 ‘조선인민인성학교’로 바꿨다. 아울러 51세의 김빈 즉 김병태가 교장으로 취임하여 7명의 교원과 여타 직원을 통솔토록 했다.¹⁰⁷⁾

104) 賀國光, 「趙志英 外 九人の 印度派遣工作을 爲한 旅券發給에 관한 件」(1945.3.28), 秋憲樹 編, 『資料 韓國獨立運動』 III, 229쪽.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2(한국광복군 III), 42~44쪽에도 관련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105) 이에 대해서는 광복군 총사령 李靑天의 정치적 고려에 따른 반대 때문이었다거나 (류동연, 「한국광복군 인면전구공작대의 파견 배경과 성격」, 77쪽) 출발 전에 영국군의 미얀마탈환전이 승리로 종료되니 취소되고 말았다는(김광재, 『한국광복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226쪽) 해석이 상이하게 나와 있다.

106) 자필 이력서에 적힌 바 “1949~1950.8 조선인민공화당 상해특별지부 서기”도 그 연장선의 것이다.

107) 上海市 軍管會 外僑事務處 編, 『上海市 外僑學校 調查』(1950.6.22.), 21~24쪽 참조. 소장처: 上海市 檔案館,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사료참조코드 ACN010_

그 후 1952년에 상하이시의 한인교민은 167戶에 351명이었는데, 그 중 100~110호의 근 300명이 실업 또는 무직 상태이면서 극빈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에 시 인민정부 외사처가 12월에 ‘동계 긴급구제공작 계획’을 세우면서 인성학교 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한교빈민들의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상세히 보고토록 했다. 또한 그 결과에 입각해 제공되는 救濟米와 綿衣의 관리 책임도 맡도록 했다.¹⁰⁸⁾ 그 일도 김빈이 주관했을 것임은 명약관화하며, 1953년에는 상하이시 조선인협회—앞의 ‘조선인민민주연합회’를 이력서에서 달리 일컬은 것이었을 터—의 집행위원장으로 피선되어 적어도 1957년 8월까지 활동한 것으로 자술되었다.

V. 맺음말

의열단운동과 부산(사람들)과의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단초를 얻은 이 글은 부산출신 의열단 간부였으나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던 김병태의 생애와 독립운동 행로의 탐구로 귀착되었다. 내친 김에 그의 형 김인태의 생애와 독립운동도 처음으로 추적, 탐사해보게 되었다.

경남 동래부(현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에서 1896년과 1899년에 태어난 형제는 박재혁·최천택 등과 함께 ‘정공단의 아이들’이 되어 자라났고 보통학교를 같이 다녔다. 그러나 중학은 부모의 의사에 따라 둘 다 일본 오카야마로 가서 다녔다. 김인태는 중학 졸업 후 귀향하여 1915년 비밀결사 구세단 조직에 참여하고 재정을 담당하면서 잡지 발간과 경남

02.

108) 上海市 人民政府 外事處, 『關於朝鮮僑民救濟案的報告及批復』(1952.12.16.), 3~6 쪽 참조, 소장처 및 출처: 위와 같음.

각지의 동지 규합에 힘쓰는 것으로 20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 나름의 민족의식 표출과 항일행로 취택의 방법으로였을 것이다. 그러다 중국 상하이로 나가서 대학을 다니다 신한청년당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1919년 2월 당의 기획대로 국내 잠입하여 3.1운동 준비 작업에 동참하였다.

상하이 귀환 한 달쯤 후 그는 프랑스 파리로 가서 세계대전 강화회의의 한국대표부 통신국 요원이 되어 활약했다. 그러나 기대되던 성과는 얻지 못하였고, 그런 상태로 그는 김규식 대표를 수행하여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때부터 거의 15년간 미국에 재류했지만, 대학 진학과 졸업 후의 직업 이력만 간략히 포착될 뿐, 다른 활동 형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도미 후에는 독립운동의 길에서 멀어졌거나 자기유폐의 삶을 산 것은 아닌가 여겨질 법도 하다.

실은 그렇게 된 까닭이 있었으니, 당시의 재미 한인사회와 유학생사회는 공히 이승만 중심의 기호파와 홍사단 계열의 서북파에 반분 장악된 형국이어서, 아주 드문 케이스로 남쪽 부산출신에다 ‘김규식의 사람’으로 알려진 그가 기성의 정치적 기류에 동조하고 끼어들 여지는 거의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자의로든 타의로든 아웃사이더나 주변인처럼 될 수밖에 없었고, 사회활동이든 민족운동이든 공적 장에서의 활동 자취를 남기기가 어려웠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환경에서의 체미 생활은 한 마디로 ‘재미없는 삶’이었겠고, 1933년의 귀국도 그래서 결단되었을 것이다.

식민지 조선의 암울한 현실과는 여러모로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는 나라들을 주유하며 두루 견문하고 당시로서는 흔치 않을 국제인이 되었던 김인태는 그러나 종착지를 쉽게 얻지 못하였다. 본향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프랑스로,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계속 옮겨갔지만, 결국은 본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곳 역시 마

음 놓고 숨 쉴 공간이 못됨을 절감했기에 그는 다시금 중국으로 나갔을 것이다. 헌데도 그는 거기서 일제에 의해 활로를 폐색당하고 음울한 식민의 땅으로 되돌아와야만 했다.

1935년 이후의 그의 행적과 가족구성 및 종생의 상황 또는 경로는 전혀 불명이다. 다만 환국한 김원봉이 1946년 부산을 방문했을 때 재회하여 같이 찍은 사진만 오롯이 남아있다. 그나마 이 사진이 그가 끝까지 일제에 투항 혹은 변절하지는 않았음을 시사해주는 것도 같다. 그래도 사진은 전체적으로 가라앉은 분위기에 어딘가 우울해도 보인다. 특히 김인태의 표정은 묘하다. 아무런 욕심 없어 보이는 눈길과 표정 속에도 웬지 모를 피로와 체념의 기색이 짙게 배어 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지치고 슬프게끔 만들었을까?



<그림 2> 1946년, 김원봉과 함께 한 김인태 · 왕치덕 · 오택(뒷줄 오른쪽부터)

이 물음에 답해보기 위해서도 불가불 아우 병태의 경우와 견주어 봐야 할 것 같다. 후자는 중학에 이어 대학도 일본에서 다니던 중에 북만

주 왕래의 색다른 경험을 가지더니, 세계대전이 종결되자 큰 포부를 품고서 1918년 말에 중국으로 건너갔다. 1920년 상하이에서 김원봉과 해후한 그는 의열단에 가입하고 박재혁 의거가 성사되는 데 한몫도 했다. 그 후로는 의열단장 김원봉의 의형제요 최측근 기밀비서가 되어 1935년의 자진해단 때까지 변함없이 의열단운동의 중심부에서 활동했다. 민족혁명당에서도 그의 직임은 그대로 이어져, 중앙위원회 기밀비서로서 중요문서 작성·수발과 대외교섭을 주관하며 김원봉의 정치적 보좌역을 줄곧 자담했다.

1945년의 광복 후에도 그는 귀국하지 않고 상하이에 남았다. 그리고는 민혁명당과 그 후계조직인 인민공화당의 대중국 외교선을 대표하면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교민보호와 한인사회 결속에도 주력했음이 일부 확인된다. 일찍이 1922년부터 한 중국인 의사의 양자가 되어있던 그로서는 최적임이었다고 할만도 했거니와, 결과적으로 공·사 양면에서 초민족적 유대를 체현해 보인다는 흔치 않은 사례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 점을 높이 사서인지 우리 정부는 한중수교 후인 1995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독립운동의 길을 가족원이 같이 걸었던 경우는 드물지 않다. 부부, 부자, 부녀, 모자, 모녀, 형제, 자매, 남매, 조손, 장인과 사위, 시부와 며느리... 등등, 굳이 특정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김인태·김병태 형제의 사례가 유난히 돋보이거나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이 각자 수행했던 역할가치에 비해서는 후대의 관심과 인지 정도가 너무 적었다. 다른 한편으로 두 사람 간에는 소년기 이후의 행로에서 상동점도 있었지만, 운명의 갈림길에서 서로 다른 길로 가게끔 한 상이점이 분명 있었다.

형제의 상동점은 의열단의 첫 거사를 성공시킨 박재혁 의사 및 의열단장 김원봉과 일찍부터 의기 상통하여 아주 친밀한 관계였으며, 후자 2

인의 동지 네트워크 속에서도 비중 큰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반면에 두 형제는 마치 의논이라도 해놓았던 것처럼 독립운동 장으로의 진입로와, 활동공간의 범위 및 성격과, 소속계열 및 인적 연결망을 달리했다. 그러니 만치 상이한 계선과 행로가 각자의 앞에 놓이게 되었다.

아우 병태는 의열단에서 시작해 조선민족혁명당 및 조선의용대로 이어지는 조직계보에 단단히 정착되어 있으면서 자기만의 특화된 역할과 행보를 일관되게 취하였다. 적어도 25년 이상 계속된 독립운동 행로 속의 수많은 족적과 그 성취 및 결실은 대부분 문서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완연하고 후대에 와서도 빛을 본다.

그러나 형 인태는 그와 많이 달랐다. 그의 초기 이력은 전도양양해보이고 그만큼 포부도 컸는데, 미국으로 가게 된 후로는 좌절과 소외의 시간이 10년 이상 길게 이어졌다. 결국 그는 독립운동 투신 당초의 의기가 완전히 꺾여버린 채로 귀국했다. 그래도 분발하여 재차 중국으로 가서 새 활동영역과 역할을 찾아보려 했지만, 그 시도조차도 일제당국의 개입과 훼방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그 후로는 전시 총동원체제의 암울한 국내상황 속에서 일제의 ‘신민’ 됄을 강요받으며 살아간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게 그는 연달아 불운에 시달렸고, 그 결과로 거의 잊힌 존재처럼 되어버렸다. 역사의 아이러니라면 아이러니가 만들어낸 비운의 또한 사례를 보는 것과도 같지 않은가.

| 참고문헌 |

1. 자료

『(金斌) 이력서』 (1) · (2), 1950 · 1955.

『(金斌) 遺稿』, 1957.

『(金斌) 회고문』 (유고 정서본).

「金鍾憲 除籍簿」.

「義烈團 關係者」, 1924.1 (일본국립 국회도서관 소장).

「朝鮮民族革命黨重要幹部簡明履歷表」(독립기념관 소장).

『東亞日報』, 『신한민보』, 『民主衆報』, 『三千里』.

『警察情報綴(昭和十一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DB.

『북미유학생 잡지 우라키(The Rocky)』 1(제1호~제3호: 1925~1928) · 2(제4호~제7호: 1930~1936),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영인, 1999.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別冊 義烈團行動』, 국편 한국사 DB.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 37, 국편 한국사 DB.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上海地方』 6, 국편 한국사 DB.

京城地方法院 檢事局, 『檢察行政事務에 關한 記錄』 1, 국편 한국사 DB.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 5 · 10 · 11 · 12 · 16 · 23 · 24 · 37 · 43, 국편 한국사 DB.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 資料』 1 · 3 · 20, 국편 한국사 DB.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31 · 45, 국편 한국사 DB.

국회도서관 편, 『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篇)』, 1976.

金三根 편, 『釜山出身 獨立闘士集』, 박제혁의사비건립동지회, 1982.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편, 『미주국민회자료집』 4, 2005.

도산안창호선생전집편찬위원회, 『島山安昌浩全集』 제10권, 200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6집, 1973.

류자명, 『나의 회억』,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1984.

朴元杓, 『釜山の 古今』, 현대출판사, 1965.

박태원, 『약산과 의열단』, 깊은샘, 2000.

社會問題資料研究會 編, 『思想情勢視察報告集』 2 · 3 · 9, 京都: 東洋文化社, 1976.

上海市 軍管會 外僑事務處 編, 『上海市 外僑學校 調査』, 1950 (국사편찬위 전자자료관).

유자명, 『유자명 수기, 한 혁명자의 회억록』, 독립기념관, 1999.

朝鮮總督府 警務局, 『軍官學校事件ノ真相』(1934), 韓洪九·李在華 編, 『韓國民族解放運動史資料叢書』 3, 경원문화사, 1988.

朝鮮總督府 警務局, 『國外ニ於ケル容疑朝鮮人名簿』, 1934.

朝鮮總督府 警務局, 『極秘 義烈團 要記』, 1924.

朝鮮總督府 警務局, 『朝鮮ノ治安狀況: 昭和2年』, 神戸: 不二出版 復刻本, 1983.

朝鮮總督府警務局,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 昭和13年』, 東京: 巖南堂 復刻本, 1966.

朝鮮總督府 警務局 保安課, 『高等警察報』 제4 · 5호, 1935.

朝鮮總督府 高等法院 檢事局 思想部, 『思想彙報』 제7 · 22호, 1936 · 1940.

秋憲樹 編, 『資料 韓國獨立運動』 I · II,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2.

巴黎通信局 編纂, 『歐洲의 우리事業』, 1920.

홍사단운동 70년사 편찬위원회, 『홍사단운동 70년사』, 홍사단출판부, 1986.

上海市 人民政府 外事處, 「關於朝鮮僑民救濟案的報告及批復」, 1952.12.16. (국사편찬위 전자자료관).

呂運弘, 「나의 바리時代 10여 년 前을 回想하면서」, 『三千里』 1월호, 1932.

在上海(日本總領事館, 「上內警發秘 제170호, 義烈團關係幹部訓練班第六隊의 狀況に關する件」, 1934 (東洋文庫 소장).

<曹晨濤>, 인터넷 《百度百科》(<https://baike.baidu.com/item/%E6%9B%B9%E6%99%A8%E6%B6%9B/10950942?fr=aladdin>)

彭曉亮, 「百年前, 他們臨危逆行: 歷史中的上海救疫医療隊」, 『上觀新聞』 2020년 4월 8일자 (<http://www.ccphistory.org.cn/node2/shds/n1653/n1654/u1ai35095.html>)

2. 저서 및 논문

김광재, 『한국광복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김영범, 『한국 근대민족운동과 의열단』, 창작과비평사, 1997.

부산일보사 편, 『어둠을 밝힌 사람들』, 부산일보사, 1983.

신용하,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사회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김선아, 「北美大韓人留學生總會의 조직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0, 2020.

金 勝, 「蘇庭 崔天澤의抗日民族志士로서의評價」, 『韓日研究』 5, 1992.

김영범, 「의열단 창립단원 문제와 제1차 국내거사 기획의 실패 전말」,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8, 2017.

_____, 「기생에서 혁명가로, 玄桂玉의 사랑과 자기해방의 고투」, 『지역과 역사』 45, 2019.

_____, 「혼백(Hornbeck)문서군 속의 韓吉洙 서한과 조선의용대 · 조선민족혁명당 사진」, 『한국근현대사연구』 96, 2021.

김주홍, 「황병길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7, 2010.

- 류동연, 「한국광복군 인면전구공작대의 파견 배경과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 95, 2020.
- 박 환, 「北路軍政署의 成立과 活動」, 『國史館論叢』 11, 1990.
- 신용하, 「신한청년당의 독립운동」, 『한국근대민족운동사 연구』, 일조각, 1988.
- 이병길, 「의열단원 박재혁과 정공단의 친구들」, 『영원한 청년 박재혁 의사』(박재혁 의사기념사업회 편), 효민디엔피, 2021.
- 이장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한국대표부’의 외교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0, 2020.
- 정병준, 「중국 관내 신한청년당과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5, 2019.

투고일 : 2021. 10. 21. 심사완료일 : 2021. 11. 22. 게재확정일 : 2021. 12. 07.

| Abstract |

A Life-course Study of Two Korean Independence Fighters
- Kim Intae and Kim Byungtae, the Busanese Brothers -

Kim, Yeong-Beom

This article is prepared primarily to examine and clarify the entire life course and path through independence movement of Kim Byungtae(金鉞泰), who was a cadre member of the Euiyeoldan(義烈團). In addition, similar path and facts related to his elder brother Kim Intae(金仁泰) are investigated and illuminated as far as possible for the first time.

The brothers were born in 1896 and 1899 respectively in Dongnae(東萊) County, which has been transformed to be a main area of the present Busan Metropolitan City. The two men began to follow the anti-Japanese course samely after graduating from middle school. In 1915, Kim Intae went to China, and entered a college in Shanghai. About the beginning of the year of 1919, he participated in the New Korean Youngmen's Party(新韓青年黨) and infiltrated the fatherland to prepare for the March 1st Movement. Successively he went to Paris, and worked as an agent of the Communication Bureau of the Korean Delegation to the Paris Peace Conference during several months, using the pseudonym 'Kim T'ang'(金湯). Though his acts and whereabouts after the move to the United States with Kimm Kiusic(金奎植) are remained unclear, it is confirmed that he returned to Korea in 1933 and went again to China a year later, unfortunately followed by being forced to return home by the Japanese police.

Kim Byungtae who had exiled to China in 1918 joined the Euiyeoldan in

Shanghai in 1920, and contributed to the bombing undertaking by Park Jaehyuk(朴載赫) against the Busan Police Station. Then he acted constantly at the center of the ranks of Euiyeoldan Movement until 1935, as a secretary to and a sworn brother of Kim Wonbong(金元鳳), the all-the-time head of the organization. After the foundation of the Korean National Revolutionary Party(朝鮮民族革命黨), he served continuously in the central executive committee of the party until 1945, especially as a secretary and the closest aide to Kim Wonbong, under the pseudonym ‘Kim Bin’(金斌) or ‘Cho Bin’(曹斌). Even after the August 15th Liberation, he remained in Shanghai to maintain the legacy of the N.R.P., at the same time to manage the party’s foreign relationship with the Chinese authorities. Thus he lived in China at least until 1957, and seemingly met the end of life there.

Key Words : Kim Intae, Kim Byungtae, Euiyeoldan, Korean Delegation to the Paris Peace Conference, Korean National Revolutionary Party